



정답과 해설



본책 02

시험 대비 문제집 27

1 문학과 삶에서 만나는 의미



운율, 비유, 상징의 즐거움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08쪽

01 (1) ○ (2) ○ (3) × 02 ② 03 추상적, 구체적

- 01 (3) 운율은 시의 음악적 요소로, 시의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운율을 통해 시의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 02 표현하려는 대상인 '눈망울'을 '같은'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사슴'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직유가 사용되었다. ③ 활유는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빗대어 표현한 방법이고, ⑤ 대구는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짝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 03 상징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상징을 사용하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제재 1 '3월'

학습곡

009쪽

단어, 의성어, 의태어, 하얀 이불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09쪽

01 ③ 02 ⑤ 03 ②

- 01 이 시는 봄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난 이른 봄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말하는 이의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시어나 시구는 찾을 수 없다.
- 02 이 시에서 '하얀 이불'은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다.
- 03 ㉠, ㉡, ㉢, ㉣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 또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의성어, 의태어이다. 이 시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활동

010~012쪽

탐구 나즉 나즉, 봄눈, 물소리, 아이들, 파란 싹들, 선물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10~012쪽

010쪽 01 ① 02 ③ 03 네 마디(4마디)

011쪽 04 ③ 05 ③ 06 ④

012쪽 07 ② 08 ④

- 01 이 시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과 6연에서 '점심 무렵에는 ~ 들에'라는 같은 단어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평 평', '나즉 나즉', '좌아악', '왁자지껄'이라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ㄷ.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ㄹ. 일정한 글자 수를 가진 시어를 반복하는 것은 주로 시조에서 나타나는 운율 형성 방식이다.

- 02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리듬감과 시의 분위기, 정서를 형성하고, 시를 읽는 재미를 준다. 운율을 통해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 03 ㉠의 시조는 각 장이 네 마디로 끊어진다. 같은 호흡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 04 이 시의 후반부인 5~8연에서는 봄눈이 녹은 자리에 새싹이 돋아난 풍경을 통해 생동감 있고 활기찬 분위기가 나타난다.
- 05 이 시에서 '산과 들에 쌓인 눈'은 '하얀 이불'에, '파란 싹'들은 '아이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ㄴ. 이 시에서 '꿀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는 '자장가'에 빗댄 표현이다.

- 06 <보기>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이 사용되었다. ⑤ 대유는 사물의 일부 분이나 특징으로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방법이다.
- 07 비유를 활용하면 대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관찰하여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대상을 인상 깊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는 않는다.
- 08 동운은 '꿈을 향해 천천히 노력하는 나'를 '달팽이'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천천히 노력한다'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대상을 이어 주는 말 없이 빗댄 은유에 해당한다.

제재 2 '사랑하는 별 하나'

학습곡

013쪽

될 수 있을까, 갖고 싶다, 별, 방황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13쪽

01 ① 02 ④ 03 ④

- 01 이 시는 말하는 이의 소망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의 초반부에서는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와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간접적인 제시로 소망을 표현하다가, 후반부에서는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바람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시에서 '별'은 누군가가 외로울 때 마음을 비쳐 주는 대상으로,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 오답 풀이** ①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길'의 상징적 의미이다.
 ② 쓸쓸하고 어두운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는 나타나지 않으나 시에서 '마음 어두운 밤'을 통해 말하는 이가 처한 현실을 알 수 있다.
 ③, 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존재나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이상향을 상징하는 시어는 이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03 말하는 이는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설 때 공감해 주고 포용해 주는 하얀 들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활동

014~018쪽

- 탐구** 문장 구조, 들꽃, 길, 공감
적용 어른, 청소년, 가능성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14~018쪽

- 014쪽 01 ① 02 ④
 015쪽 03 길 04 ② 05 ⑤
 016쪽 06 ④ 07 ④ 08 ⑤
 017쪽 09 ③ 10 ③
 018쪽 11 청소년, 가능성 12 ④ 13 ④

01 이 시는 비슷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보다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③, ④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시어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비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⑤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징에 대한 설명이다.

02 이 시의 3연과 4연에서 말하는 이는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통해 의미 있는 존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3 이 시에서 '길'은 말하는 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상징하며, 말하는 이는 이러한 '길'을 비추어 줄 존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4 이 시에서 '꽃'은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누군가의 가슴에 안기어 눈물짓듯 웃어 주는 존재이다. 즉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해 주고 포용해 주는 존재 등을 상징한다.

- 오답 풀이** ① '별'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이자 힘이 되는 존재이다.
 ③, ④, ⑤는 상징적 표현이 쓰인 시어가 아니다.

0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삶을 소망한다.

06 상징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대상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07 시에서 직유, 은유, 의인 등과 같은 비유를 활용하면 대상을 더 구체화하고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다.

08 운율은 같은 호흡이나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 문장 구조의 반복,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을 통해 형성된다.

09 (다)에서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면'이라고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불완전성을 지닌 인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드러나지 않는다.

10 이 글에서 '아홉'은 완벽하지 않아 어딘가 부족해 보이지만,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점에서 우리 선조들이 열보다 더 사랑했던 숫자이다. 모든 것을 이룬 수는 '열'이다.

11 이 글에서 글쓴이는 아직 부족하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숫자 '아홉'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12 이 글의 글쓴이는 꼭 차기 전 가능성을 지닌 숫자 '아홉'을 청소년에 대응시키고 있다. 숫자 '아홉'처럼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숫자 '열'과 '아홉'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지만,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②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아홉 가지 덕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다)에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⑤ 우리 선조들의 숫자 '아홉'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숫자 '아홉'의 의미 변화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13 ㉠은 은유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청소년을 '흰 도화지'에 비유하여 청소년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아이들을 자라나는 새싹들로 빗댄 은유의 표현을 활용하였다.

- 오답 풀이** ①, ② 의인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⑤ 직유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17쪽

(1) × (2) ○ (3) ○

* 압축 파일

020쪽

- ① 의성어 ② 직유 ③ 자장가 ④ 별 ⑤ 목표
 ⑥ 가능성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21~022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③ 06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삶을 소망한다. 07 ⑤ 08 ② 09 ⑤

- 01 이 시는 봄눈이 내리는 날과 그 다음 날 봄눈이 녹은 날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 02 이 시에서 '아이들'은 실제 아이들이 아니라, '파란 싹들'을 비유한 표현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왁자지껄 모여서 노는 장면은 이 시의 내용과 맞지 않다.
- 03 ①과 ②은 모두 직유를 사용한 표현이다. 직유는 '처럼'이나 '-듯이'와 같은 말로 두 대상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다. ㉠에서는 물소리의 부드럽고 고요한 특성을 자장가에 비유하여 표현하였고, ㉡에서는 파란 싹들의 생기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오답풀이** ② 은유는 비슷한 특성이 있는 두 대상을 이어 주는 말 없이 간접적으로 빗대는 방법으로 주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 ③ 의인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 ④ 대유는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방법이다.
- ⑤ 풍유는 속담이나 격언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 04 [A]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을 사용하여, '파란 싹들'이 돌아난 모습을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이른 봄의 생동감과 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A]는 주로 활동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므로 봄의 포근함보다는 생동감을 강조하는 데 더 적합하다.
- ② [A]의 의인을 활용하여 대상을 더 구체화하고 생생하게 나타낸다.
- ③ <보기>의 표현이 [A]보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 ④ [A]의 '왁자지껄'이라는 표현은 <보기>의 표현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며, 시적 표현을 통해 감각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 05 이 시는 '별', '꽃', '길' 등의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동시에 그러한 존재를 갖고 싶다는 말하는 이의 소망을 드러낸다.
- 오답풀이** ① 이 시에 '~자'로 끝나는 청유형 문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모든 연에서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1연과 2연의 '나도 ~이 될 수 있을까 ~ 주는 ~이 될 수 있을까'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될 수 있을까'와 같은 시구의 반복 등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거나 말하는 이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며 말하는 이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06 **사술형**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별', '꽃', '길' 등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소망하고 있다.
- 07 이 시에서 '길'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상징하며, 말하는 이는 이러한 '길'을 비추어 줄 존재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길'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08 이 글에서 글쓴이는 숫자 '아홉'과 청소년 모두 아직 어딘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숫자 '아홉'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오답풀이** ㄴ, ㄹ은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이룬 상태인 숫자 '열'에 대한 설명이다.
- 09 이 글에서 숫자 '아홉'은 청소년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으로, ㉠에서 글쓴이는 숫자 '아홉'처럼 청소년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추론하며 듣기

활동

023~030쪽

- 탐구** 영화관, 의사소통, 부탁, 거절, 안전모, 처벌 규정, 자부심, 가치관, 내면, 마음의 근육
- 적용** 신호등, 생활 안전

학습곡

024쪽

의도, 관점, 상황 맥락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23~030쪽

- 023쪽 01 ③ 02 ③ 03 ②
- 024쪽 04 ④ 05 ②
- 025쪽 06 ② 07 ④ 08 ⑤
- 026쪽 09 ⑤ 10 ④ 11 실효성
- 027쪽 12 ② 13 ⑤ 14 마음의 근육
- 028쪽 15 ④ 16 ⑤
- 029쪽 17 ② 18 ④ 19 ③
- 030쪽 20 ③ 21 ④ 22 ⑤

- 01 청자는 담화의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담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자가 있어야 한다.
- 02 남학생의 말에서 영화가 이미 시작된 시각에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발화의 길이는 상황 맥락에 포함되지 않는다.
- 04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지금 몇 시니?”라고 묻는 말에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
- 05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는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화자가 항상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 06 ㉠은 민서에게 학급 게시판에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의도를, ㉡은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는 종하의 부탁을 거절하는 의도를 지닌다.
- 07 과자를 먹겠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은 거절의 의미를 지닌다.
- 08 이 뉴스 보도에서 기자는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의 미착용 실태를 전달하고 있다.
- 09 자전거 이용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전거를 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③, ④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② 자전거 대여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전거 안전모를 빌려주지만 이용자들이 없다는 이유로 쓰지 않거나 빌려줘도 매달고 다녀서 깨서 가지고 온다고 하였다.
- 10 기자의 말에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기사에서 안전모 착용은 이미 의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기사에서는 전기 자전거의 안전모 착용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안전모 착용 규정의 실효성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③ 자전거 도로의 설치로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⑤ 기사에서는 자전거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다루지지 않았다.
- 11 이 뉴스 보도에서 기자는 통계 자료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12 초등학교 시절, 화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자가 친구들을 원망했다는 내용은 알 수 없다.

- 13 (다)에서 화자는 권투를 하면 누구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투가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14 (마)에서 화자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 15 (라)에서 화자는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상처를 받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6 (라)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생겼다고 표현하였다.
- 17 화자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책했으나,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된 후에는 자신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 18 화자는 종합 격투기 선수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인생 사진으로 제시하며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하였음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 19 화자는 시련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청중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전하고 있다.
- 20 이 광고는 5초의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주제를 “5초만!”이라는 담화를 통해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21 승강장, 수영장, 건널목 등 장소가 달라지면서 “5초만!”이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 22 다양한 장소에서 “5초만!”이라는 말은 5초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⑤은 앞차를 추월하려는 위험한 행동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5초의 시간을 활용하여 안전을 지키는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이다.

* 압축 파일

032쪽

- ① 의도 ② 상황 맥락 ③ 안전모 ④ 자신감 ⑤ 근육
⑥ 안전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33~034쪽

-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06 ③ 07 ③
08 ③ 09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10 ④

- 01 동일한 표현이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표현을 같은 의도로 사용하였는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02 이 담화에서는 동일한 화자 민서가 말한 “괜찮아.”라는 말이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 03 종하는 내일까지 학급 게시판을 꾸며야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은 민서에게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 04 기자는 2018년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은 2018년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5 **세술형** 기자는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안은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 06 (가)는 연설, (나)는 공익 광고로 모두 청자의 마음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설득 담화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청자의 재미보다 청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② (가)에 정서적 요소가 나타나 있지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자신감을 갖자는 것이며, (나)는 감정적 요소보다 행동을 유도하는 설득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보다는 청자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려는 설득적 목적이 강하다.
 ⑤ (가)와 (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청자를 설득하여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07 (가)에서 화자는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며 내면이 단단해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자가 운동을 하면서 또래 중 가장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8 (가)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마음의 근육을 만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가치관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지유이다.
- 09 **세술형** (가)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는 시험 직후의 사진을 인생 사진으로 제시하여 이처럼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10 (나)에서 “5초만!”이라는 말은 곧 빨간불로 바뀌는 건널목 상황을 반영한 표현으로,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면 다음 초록불 신호등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안전하게 건너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035~037쪽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 01 ① 02 ⑤ 03 별, 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기를 소망한다. 04 ③ 05 ③ 06 ② 07 ④ 08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안전모 의무화 규정 09 ③ 10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마음의 근육을 만들자. 11 ④

- 01 (가)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에서 같거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1연과 2연에서 ‘나도 ~이 될 수 있을까 ~ 주는 ~이 될 수 있을까’,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징으로, (나)에만 나타나 있는 표현이다.
 ③ (가)에 ‘평 평’, ‘나즈 나즈’, ‘좌아악’, ‘악자지껄’ 등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되었으나 (나)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와 (나)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유 표현은 장면의 생동감을 나타내기보다는 감정이나 소망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나)에서는 자연물인 ‘별’과 ‘꽃’을 소망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자연물인 ‘봄눈’, ‘산’, ‘들’ 등이 나타나지만 이들은 소망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연 현상의 변화와 흐름을 보여준다.
- 02 (가)는 봄눈이 내린 날과 봄눈이 녹은 그 다음 날의 풍경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며,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 03 **세술형** (나)에서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은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과 그러한 존재를 갖고 싶은 소망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 04 ㉠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고 싶다는 말하는 이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표현이다. 말하는 이의 소망은 3연과 4연의 ‘갖고 싶다’라는 시구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05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필요하거나 특정한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보까지 수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뉴스 보도와 같은 정보 전달 담화를 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06 (가)의 자전거 대여소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빌려줄 안전모가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대여소에서 안전모를 빌릴 수 없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7 (나)에서 기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낮은 안전모 착용률 등 신뢰도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보도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자전거의 안전모 착용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② 통계 자료는 안전모 미착용 실태를 보여 주고 있지만, 안전모 의무화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③ 통계 자료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이 낮다는 실태를 보여 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⑤ 통계 자료는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08 **서술형** 뉴스 보도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더위, 불편함, 번거로움 등을 꼽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처벌 규정의 부재로 인해 규정 준수가 강제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기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자료와 전문가의 인터뷰를 제시하며, 안전모 착용률이 20%에 그치는 점과 법 시행 이후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정의 실효성 부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은 현재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효성 없는 규정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09 (나)에서 권투 선수가 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형식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 연설에서 화자의 노력을 표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0 **고난도 서술형** (다)의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이 생겨,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의 화자는 자기 비하에 빠진 초등학교 시절의 화자에게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시련을 극복하라는 내용의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목표	설득 담화에서 화자의 가치관 추론하기
채점 기준	✓ 〈조건〉을 충족하여 (다)의 화자가 해 줄 수 있는 조언을 바르게 쓴 경우 [상]
	✓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썼으나, ‘~자.’의 형식으로 쓰지 못한 경우 [중]
	✓ 화자의 가치관과 관계없이 (다)의 화자가 해 줄 수 있는 조언을 쓴 경우 [하]

11 초등학교 시절, 힘든 시간을 보내던 화자는 권투 회원을 모집한다는 전단을 보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도움의 손길처럼 느꼈다. 따라서 화자가 권투를 통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정보를 판단하는 힘



요약하며 읽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40쪽

01 (1) ○ (2) × (3) ○ 02 정보 03 ②

- 01 (2) 같은 글을 읽더라도 읽기 목적에 따라 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읽기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요약하기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02 글의 종류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중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는 대상과 그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03 요약하기의 규칙 중 ‘삭제’는 글에서 덜 중요한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 예시 등을 삭제하는 방법이다.

제재 1 「스마트폰은 나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학습목

041~044쪽

042쪽 도구, 소통, 과의존, 뇌

044쪽 발달, 강화, 사고, 수면, 자극, 태도, 편리, 발달, 현명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41~044쪽

041쪽 01 ④ 02 ④

042쪽 03 ③ 04 ③ 05 시각

043쪽 06 ⑤ 07 수면 부족 08 ③

044쪽 09 ② 10 ④

- 01 1문단에서 [] (대괄호)의 내용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제목으로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적절하다.
 02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다루는 세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걷느라 주변을 미처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②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③ 스마트폰을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다가 눈이나 척추, 손목 등의 신체 부위에 여러 가지 질병을 얻기도 한다.
 ⑤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지 못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 03 제시된 내용은 3문단에서 반복되는 내용, 덜 중요한 정보, 예를 든 내용을 삭제하면서 요약한 것이다.

04 청소년기에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가 함께 재편된다고 하였다. 감정을 처리하는 신경 회로가 주로 재편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5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뇌에서 주로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하게 반응하여,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 간의 연결은 강화되지만 다른 신경 회로 간의 연결은 약화된다고 하였다.

06 4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중심 내용을 제시하고, 스마트폰의 의존도와 뇌의 사고 능력이 반비례한다는 실험 결과를 인용하여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의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지도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받았던 집단이 그린 지도의 정확성이 가장 떨어졌다고 하였을 뿐, 스마트폰 지도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4문단에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의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③ 전자 기기에 의존할수록 뇌는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 뇌의 사고 능력과 스마트폰 의존도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환경 심리학 학술지에서 뇌의 사고 능력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험을 소개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의존성을 경고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7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깨고 사라져서 있는 동안 학습했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사라지면서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된다.

08 도파민은 주로 즐거움과 관련된 보상을 얻을 때 생긴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청소년기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기이다.

②, ⑤ 도파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이 떨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긴 시간 동안 더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해야 뇌가 반응한다.

④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기만 하면 좋아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게임 역시 일시적이지만 성취감을 맛보게 해 주는 등 쉽고 빠르게 자극을 얻을 수 있다.

09 7문단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스마트폰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뇌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0 7문단은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으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44쪽

(1) ㉠ (2) ㉡ (3) ㉢

활동

045~047쪽

탐구 사고, 자극, 능력, 기능, 발달, 기억력, 쉽고, 전환, 설득, 시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45~047쪽

045쪽 01 ③ 02 ⑤ 03 ①

046쪽 04 ③ 05 ⑤

047쪽 06 ⑤ 07 ⑤ 08 ⑤

01 이 글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글이다. 중심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된 글이 아니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글의 ‘중간’에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03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오늘날 스마트폰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이 글을 요약하는 데 꼭 필요한 문장은 아니다.

04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잠이 부족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사하려는 민준의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문단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자극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내용은 6문단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독서할 때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신경 회로 간의 연결 양상을 대조하고 있으므로, 요약된 내용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독서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06 지표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 간단하게 표현하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기호의 개념은 알 수 있으나, 기호의 예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지도는 넓은 범위를 담기 위해 실제 공간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나타낸다고 하였다.

② 축척을 통해 지도에 나타난 실제 거리를 확인하고,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가 없을 때에는 지도의 위쪽을 북쪽으로 보는 등 지도를 읽는 방법을 알 수 있다.

③ 지도는 축척, 방위, 기호로 구성된다.

④ 이 글에서는 지도를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도와 주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07 교과서에서 표, 그림 등은 글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제시된 그림만 남기고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요약 방법이 아니다.

08 교과서에 제시된 글은 학습을 목적으로 한 글이다. 따라서 글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개성 있게 나타내기보다는 글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곡

048~050쪽

048쪽 유행, 소량, 환경

050쪽 온난화, 수자원, 침출수, 대기, 친환경적, 소비, 실천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48~050쪽

048쪽 01 ② 02 ⑤

049쪽 03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도 심각한 문제이다. 04 ③ 05 ③

050쪽 06 ⑤ 07 ① 08 ③

01 1문단에서는 패스트 패션의 개념과 일반적인 의류 업체와 대비되는 패스트 패션의 특징을 설명하고, 패스트 패션의 이점과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02 2문단에서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탄소로 인해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03 3문단에서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중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언급한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에 해당한다.

04 패스트 패션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옷을 더 쉽게 사고 부담 없이 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버려진 옷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주변의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태우면 유독 가스를 내뿜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우리나라에서 한 옷의 95퍼센트는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그중 40퍼센트는 버려지거나 소각된다고 하였다.

ㄴ.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버려진 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고 하였을 뿐, 옷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5 앞 문장에서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한 뒤, ㉠에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06 6문단에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친환경적인 의류 소비를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07 제시된 내용은 6문단의 중심 문장인 첫 번째 문장을 선택해서 요약한 것이다.

08 글쓴이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격과 품질 외에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옷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싼 옷을 사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48쪽

(1) × (2) ○

활동

051~055쪽

탐구 탄소, 파괴, 친환경적, 시작, 패스트, 낭비, 불필요

적용 경험, 공기, 쌀, 소, 소내기, 유래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51~055쪽

051쪽 01 ④ 02 ③

052쪽 03 ② 04 ② 05 ⑤

053쪽 06 ① 07 이렇게 날이 짹짹한데 08 농부: 소, 스님: 바람에 든 쌀

054쪽 09 ② 10 ④ 11 스님이, 맑아졌어

055쪽 12 ④ 13 소나기의 유래 14 ④

01 이 글은 서론에서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밝히고, 본론에서는 옷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와 가치를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02 이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글로, 주장하는 글을 요약할 때에는 글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사건의 배경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이야기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다.

03 해시태그로 '가치소비_친환경의류'를 달아 놓았으나, 이는 환경 보호 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지 친환경 의류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옷장을 느리게'라는 표지는 옷장 관리를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패스트 패션의 소비를 지양하고 옷을 사고 버리는 순환을 느리게 하라는 뜻이다.

05 '#유행을선도하는패스트패션'이라는 해시태그는 이 글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유행에 따라 옷을 구매하지 말자고 하였다.

06 이 글은 설화의 한 갈래인 민담으로, 갑자기 내리는 비를 '소나기'라고 부르게 된 유래를 담은 이야기이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농부와 스님이 내가를 하게 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③ 농부와 스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이 글은 민간에서 구술로 전승되다가 기록된 민담이다.

⑤ 이 글에서는 일상적 대화에서 주로 쓰는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 07 (나)에서 농부는 날이 짙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08 농부는 농사꾼에게 귀중한 소를 내놓았고, 스님은 하루 종일 동냥한 쌀을 내놓았다.
- 09 스님은 늘 땀(소금)에 젖어 있는 장삼을 만졌을 때 몹시 눅눅했으므로 공기 중에 물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도술을 부려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다.
- 10 갑자기 비가 내려 스님이 내기에서 이겼지만, 스님은 농사짓는데 소가 얼마나 요긴한지 알기에 농부에게 소를 받지 않았다.
- 11 (라)의 마지막 문장 중 '장대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뚝 그치고,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하늘도 금세 맑아졌다.'에서 ㉠과 관련된 소나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12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13 이 글은 농부와 스님이 소를 길고 내기를 했다는 '소내기'에서 나온 말이 '소나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14 <보기>에 제시된 과제는 이 이야기의 주요 내용과 주제를 고려하여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스님과 농부가 소를 길고 내기를 했다는 '소내기'에서 '소나기'가 유래되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53쪽

- (1) 동냥 (2) 장삼

* 입속 파일

057쪽

- ① 스마트폰 ② 뇌 ③ 수면 ④ 자극 ⑤ 환경 ⑥ 생산
⑦ 온난화 ⑧ 유독 가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58~060쪽

- 01 ⑤ 02 ⑤ 03 도파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04 ③ 05 ③ 06 ④ 07 ④
08 ④ 09 ④ 10 ③

- 01 요약이란 주요 단어와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다.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은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화하여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 02 **세술형** (마)의 중심 내용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 03 도파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크기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전보다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04 이 글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주장을 담은 글로, 주장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의 3단 구조로 이루어진다.
④ (나)에서 옷을 만들 때 필요한 구체적인 물의 양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 (다)에서 옷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 05 (가)~(다)에서는 옷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해 말하고 있다.
- 06 (가)에서 패스트 패션 산업의 영향으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7 (다)의 중심 내용은 버려진 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 08 (가)는 주장하는 글이므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나)는 이야기 글이므로 인물, 사건, 배경 등 이야기의 주요 구성 요소와 사건 전개 단계에 따라 요약한다.
- 09 옷을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 외에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10 스님은 빨래를 자주 못 해서 늘 땀(소금)에 젖어 있는 장삼을 만졌을 때 몹시 눅눅한 것을 보고, 공기 중에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오겠다고 생각하였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61쪽

- 01 (1) ○ (2) ○ (3) × 02 ④ 03 (1) 중간 (2) 처음 (3) 끝

- 01 (3)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 02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글의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 03 설명하는 글은 처음에서 설명 대상과 글을 쓴 동기, 목적을 제시하고, 중간에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하며, 끝에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독자에 대한 당부부를 제시한다.

활동

062~070쪽

탐구 가치, 역사, 주제

적용 기사문, 보고서, 설명서

학습목

068쪽

신뢰성, 객관적, 독자, 수집, 개요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62~070쪽

062쪽	01 ④	02 ③	
063쪽	03 ②	04 ④	
064쪽	05 ⑤	06 ③	
065쪽	07 ③	08 ③	
066쪽	09 ③	10 ①	
067쪽	11 ②	12 ⑤	
068쪽	13 ④	14 ②	15 ①
069쪽	16 ②	17 ④	
070쪽	18 ⑤	19 ⑤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은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 순서로 이루어진다.
-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과 순서를 정하여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②, ⑤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④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도표,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써야 한다.
- 서연은 교내 소식지를 읽는 ○○ 중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소개하기 위해 너비아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 설문 조사 결과 비빔밥에 비해 너비아니나 신선로의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은 13명이 응답한 신선로이다.
- 소고기에 포함된 영양소 중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은 비타민B가 아니라 트립토판이다. 비타민B는 피로를 해소하고 활발한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닌다.

- 자료 (라)는 너비아니의 유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너비아니의 역사와 유래에 관한 내용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에 대한 안내는 너비아니 자체에 대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제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자료 (바)는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이므로, 너비아니의 재료와 요리 순서를 소개한 자료 (나)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서연은 '중간 1'에서 너비아니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너비아니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하고, '중간 2'에서는 너비아니의 재료와 요리 순서를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끝'에서는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너비아니를 먹어 보자고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오답풀이 ㄱ. '처음'에는 너비아니의 인지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까닭을 제시한다.
ㄴ. '중간 3'에서는 너비아니의 주재료인 소고기의 영양 정보가 담긴 자료를 활용하여 너비아니의 가치를 설명한다.
ㄷ. '중간 4'에서는 너비아니로 색다른 음식을 만든 사례를 찾아 소개한다.
- 서연은 주제를 직접 드러내는 "우리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 소개"라는 평이한 제목보다는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하려고 한다.
- 너비아니가 대중의 입맛을 두루 만족시킨 사례를 찾아 추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서연은 '소고기를 얇고 넓게 저며서 양념장에 재운 뒤 석쇠에 구운 음식으로'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너비아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③ 서연은 초고에서 '전통 음식 인지도 설문 조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설문 조사 결과는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보여 주어 너비아니를 소개하려는 의도를 밝히기 위해 도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④ 서연은 너비아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는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이에 대해 너비아니를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문장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⑤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과 너비아니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두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서연은 '너비아니가 가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문장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너비아니의 요리 순서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너비아니를 만드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는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②, ③ 너비아니의 재료와 요리 방법과는 관련 없는 자료이다.
④ 라디오는 청각적인 정보만 전달하기 때문에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 13 글의 주제, 내용, 구성 등이 계획한 대로 잘 표현되었는지 점검하여 내용의 흐름이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고쳐쓰기 과정이 필요하다.
- 14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빠짐없이 명확히 밝히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15 서연은 우리가 잘 모르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너비아니의 가치를 되새겨 보기 위해 너비아니를 소개하려고 한다.
- 16 너비아니의 재료는 주재료인 소고기와 간장을 기반으로 한 양념장 등이다. 너비아니의 양념장에 고추장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17 수집한 정보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제와의 연관성, 예상 독자의 수준, 정보의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중요도에 따라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18 건의하는 글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쓰는 글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설득을 위한 글이다.
- 19 자신이 가입한 동아리를 소개하려는 목적이므로 앞으로 새로 생길 동아리 명단은 글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

입축 파일

072쪽

- ① 정보 ② 계획 ③ 매체 ④ 삭제 ⑤ 조직 ⑥ 너비아니 ⑦ 개요 ⑧ 도표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73~074쪽

- 01 ④ 02 ⑤ 03 ㉠, 너비아니를 만드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04 ② 05 ④ 06 ⑤ 07 ④

- 01 글쓰기 과정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글을 쓰다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내용을 다시 조직할 수 있다.
- 02 접속어나 지시어가 잘못 쓰인 곳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글을 쓴 후 고쳐쓰기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 03 **시술형** <보기>는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으로, 너비아니의 재료와 요리 순서를 설명하는 ㉠에서 활용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04 너비아니는 궁중 음식을 주로 소개한 『이조궁정요리통고』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 궁중 음식의 하나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 05 너비아니의 양념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장은 된장 양념에 비해 향이 강하지 않아 대중의 입맛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너비아니는 손질한 소고기를 양념장과 함께 주물러 재워 두었다가 석쇠에 구워서 만드는 음식이다.
- ② 1957년에 조선 시대 궁중 음식을 주로 소개한 『이조궁정요리통고』에 너비아니가 기록되었다고 하였다.
- ③ 너비아니의 주재료인 소고기는 철분, 아연, 단백질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신체 발달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 ⑤ 최근에는 너비아니가 들어간 토스트나 햄버거, 너비아니 덮밥, 너비아니를 넣은 김밥 등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

- 06 수집한 정보 중 활용할 정보를 선정할 때에는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의 관심과 수준 등을 고려하고, 출처가 명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해야 한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 07 (라)에서는 최근 너비아니를 기존의 방법으로만 즐기지 않고, 다양하게 변형하여 즐기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너비아니를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75~077쪽

- 01 ③ 02 ③ 03 잠이 부족하면 깨어 있는 동안 학습했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기 기억으로 머물다 사라지게 되면서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된다. 04 ⑤ 05 ⑤ 06 (나), (다) 07 ④ 08 ⑤ 09 ④

- 01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하는 대상과 그와 관련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다.

오답 풀이

- ①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할 때에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해야 한다.
- ②, ④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처음-중간-끝'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대상과 그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 ⑤ 요약하기의 규칙 중 삭제는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 예시 등을 삭제하는 방법이다. (나)에서 반복되는 내용과 독서와 스마트폰 사용 시 신경 회로 간의 연결 양상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삭제하면 중심 문장을 도출할 수 있다.
- 02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영상 시청을 하면 뇌에서 주로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하게 반응하면서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 간의 연결이 강화된다.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 간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 03** **고난도 서술형** (다)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수면이 부족하면 깨어 있는 동안 학습했던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 머물다 사라지게 되면서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되어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평가 목표	중심 문장 재구성하여 요약하기
채점 기준	✓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한 문장으로 쓴 경우 [상] ✓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바르게 썼으나,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중] ✓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바르게 쓰지 못한 경우 [하]

- 04**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 태우면 유독 가스를 내뿜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하였으므로, 매립을 통해 환경 오염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5** (마)에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잘 입을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고, 옷이 필요할 때 중고 의류를 구매하는 등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옷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최신 유행에 맞추어 빠르게 생산되고 저렴하게 판매되는 패스트 패션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옷을 생산하기 위해 섬유를 제조하고 가공할 때 많은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옷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고, 옷을 염색할 때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면서 물을 오염시킨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의류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주변의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매립해도 썩지 않고 태우면 유독 가스를 내뿜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하였다.

- 06** **서술형** (나)와 (다)를 통해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7** 글의 목적과 주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이나 구성, 표현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수정·보완하여 글을 다듬는다. 고쳐쓰기 단계에서 글의 목적을 수정·보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8** (가)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너비아니의 낮은 인지도를 제시하고, (나)에서 너비아니의 재료와 너비아니의 요리 순서를 안내하며, (다)에서 너비아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너비아니가 유명한 음식점에 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 09** '전통 음식 인지도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의 형태로 제시하면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3 세상을 담은 언어, 우리를 잇는 매체



품사로 빚어낸 세상

활동

080~102쪽

- 탐구** 081쪽 기쁘다, 나뭇잎, 먹다
 084쪽 솜사탕
 085쪽 현관문, 하나, 첫째, 주어
 088쪽 앞드리다, 낮다
 089쪽 먹어라, 형용사
 093쪽 체언, 관계, 대조
 096쪽 구체적, 가장
 097쪽 옛, 열심히, 부사
 099쪽 여보세요, 그래, 독립적
 101쪽 관형사, 동사, 형용사, 간결, 반복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80~102쪽

- 080쪽 01 ① 02 ③
 081쪽 03 ⑤ 04 ⑤ 05 ①
 082쪽 06 ④ 07 대명사 08 ③
 083쪽 09 ① 10 ④
 084쪽 11 ④ 12 ② 13 ④
 085쪽 14 ⑤ 15 ② 16 ③
 086쪽 17 ⑤ 18 ⑤
 087쪽 19 ③ 20 활용
 088쪽 21 ② 22 열다 23 ⑤
 089쪽 24 ② 25 ①
 090쪽 26 ② 27 ⑤
 091쪽 28 ③ 29 ③
 092쪽 30 관계 31 ⑤
 093쪽 32 ② 33 ④
 094쪽 34 ③ 35 ①
 095쪽 36 모든, 새 37 ④
 096쪽 38 ④ 39 구체적 40 ⑤
 097쪽 41 ② 42 ③ 43 ①
 098쪽 44 ⑤ 45 ②
 099쪽 46 ③ 47 ⑤ 48 ⑤
 100쪽 49 ⑤ 50 ⑤
 101쪽 51 ① 52 형용사 53 ③
 102쪽 54 ⑤ 55 ③

01 품사를 나누는 기준에는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02 '열다'는 '열고', '열어'처럼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03 '아홉'과 '나뭇잎'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먹다', ② '앉다', ③ '작다', ④ '기쁘다'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이다.

04 기능에 따른 품사의 분류란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 있다.

05 '작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앉다', '흔들다', '달리다', '굴러가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06 '불쑥'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 '나무', '동생', '마을', '얼굴'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07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이다.

08 '나'는 자기 자신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철수', '교실', '선생님', '심부름'은 모두 명사이다.

09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것은 체언이다. 체언 중에서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수사로, ① '셋'이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오답풀이 ② '너희'는 대명사, ③ '마을'과 ④ '백성'은 명사, ⑤ '구하다'는 동사이다.

10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이르는 말이다. ① '우리', ③ '이곳'은 대명사, ② '셋'은 수사, ⑤ '마법사'는 명사이므로 모두 체언이다. 그러나 ④는 조사이다.

11 명사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로 나눌 수 있다. '걱정'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12 '이것'은 뒤에 나오는 '그림'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할아버지', '지운', '학생', '그림'은 명사이다.

13 '이것', '저', '저기'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14 '삼', '둘', '스물',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고, '셋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15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주체) 역할을 한다.

16 '나란히'는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단어이다.

오답풀이 ① '수저', ② '이슬비'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④ '이곳'은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⑤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17 대상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는 '입고(입다)'이다.

오답풀이 ① '푸르구나(푸르다)', ② '새하얏다', ③ '재미있게(재미있다)', ④ '따뜻한(따뜻하다)'은 모두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18 쓰임에 따라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는 형용사이다.

오답풀이 ① '맑다', ② '춥다', ③ '많다', ④ '즐겁다', ⑤ '맛있다', '친절하다'는 형용사이고, ① '앉다', ② '잡다', ③ '뛰다', ④ '입다'는 동사이다.

19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독립언(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독립언(감탄사)'은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쓰이는 품사이다.

20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는 '먹고, 먹자', '예쁘니, 예쁜' 등과 같이 쓰임에 따라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 한다.

21 동사 '신나게'의 기본형은 '신나다'이다.

22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로, '얼궂구나'가 동사에 해당한다. '얼궂구나'의 기본형은 '얼다'이다.

23 '들어와서(들어오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낮지만(낮다)', '가늘게(가늘다)', '아파서(아프다)', '즐거웠다(즐겁다)'는 모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2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동사의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한 것이다. ② '맑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없다.

25 ㉠ '심고(심다)'는 동사, ㉡ '예쁘구나(예쁘다)'는 형용사이다. 동사는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6 조사는 독립적인 뜻을 지니지 않고, 문장에서 다른 단어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27 '보는'은 동사 '보다'의 활용형으로, 어간 '보-'에 어미 '-는'이 붙은 형태이다.

28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인다. 이 문장에서 조사는 '는', '와', '를'이다.

오답풀이 ①, ② '나'는 대명사, '친구'는 명사로 체언에 속한다. 체언은 홀로 쓰일 수 있다.

④ '문제'는 명사로 체언에 속한다. 체언은 홀로 쓰일 수 있다.

⑤ '풀었다'는 동사로 용언에 속한다. 용언은 홀로 쓰일 수 있다.

29 ① '야', ② '와', '를', ④ '이니(이다)', ⑤ '만'이 조사이다.

30 '가가 결합한 명사는 '찾는다'의 주체가 되고, '를'이 결합한 명사는 '찾는다'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조사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31 '이다'는 조사이지만, 예외적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 32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인다. '새'는 뒤에 오는 '가방'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 33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등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34 관형사는 문장 전체를 꾸미지 않고,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준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며, 때에 따라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 35 ① '모르겠네(모르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용언(동사)에 속한다.
- 36 '모든'은 뒤에 오는 명사(체언) '아이'를, '새'는 뒤에 오는 명사(체언) '옷'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팔짝'은 부사로 체언을 꾸며 주지 않는다.
- 37 빈칸은 용언 '오너라'를 꾸며 주는 위치에 있으므로 ④ '가까이'(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④ '가까이'가 부사이고, '옛', '현', '온갖', '아무런'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38 관형사 '모든'이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놀란 까닭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관형사는 문장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39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와 부사를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40 '슬며시'는 뒤에 오는 동사(용언) '닫고'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41 ㉠은 관형사로 문장에서 주로 체언을 꾸며 주고, ㉡은 부사로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준다.
- 42 ③ '훨씬'은 뒤에 오는 부사 '빨리'를 꾸며 주고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천천히'는 뒤에 오는 용언 '굴러간다'를 꾸며 준다.
② '너무'는 뒤에 오는 용언 '어려웠다'를 꾸며 준다.
④ '천천히'는 뒤에 오는 용언 '걸자'를 꾸며 준다.
⑤ '팔랑팔랑'은 뒤에 오는 용언 '날리고'를 꾸며 준다.
- 43 ㉠은 관형사, ㉡은 부사로,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반면,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어 관형사보다 꾸미는 대상이 더 많다.
- 44 밑줄 친 단어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45 감탄사는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문장의 처음, 중간, 끝 어디에도 올 수 있다.
- 46 ① '어이쿠', ② '여보세요', ④ '와', ⑤ '이런'은 모두 감탄사이다. ③ '사랑'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47 '야'는 부름을 나타내는 말, '응', '아니'는 대답할 때 쓰는 말, '이런', '아이고'는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한다.
- 48 감탄사는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어서 자리 옮김이 자유롭다.

- 49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쓰이는 감탄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주는 말은 부사로, '가득'의 뒤에 오는 용언(동사) '채울(채우다)'을 꾸며 준다.
②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은 대명사로, '우리'가 대명사에 해당한다.
③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수사로, '하나', '둘'이 수사에 해당한다.
④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말은 '사소한(사소하다)', '쌓여(쌓이다)', '채울(채우다)', '온다(오다)'로 모두 네 개가 사용되었다.
- 50 '이구나'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다.
- 51 '온갖'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따라서 동사인 '찾아오다'를 형용사인 '가득하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52 '느리자'는 형용사 '느리다'의 어간 '느리-'에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은 형태로, 형용사에는 청유형 어미를 붙일 수 없다.
- 53 대명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같은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아 글의 내용이 간결해진다.
- 54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 다양한 대상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인 부사를 다양한 음식과 함께 먹는 반찬인 김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55 '오'는 감탄사, '새'는 관형사, '신발'은 명사, '이'는 조사, '정말'은 부사, '멋지다'는 형용사이다.

* 압축 파일

104쪽

- ① 의미 ② 역할 ③ 이름 ④ 대신 ⑤ 체언 ⑥ 조사
⑦ 독립언 ⑧ 움직임 ⑨ 성질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05~106쪽

- 01 ⑤ 02 ① 03 ② 04 ① 05 ③ 06 ④
07 ① 08 ② 09 ② 10 ㉠: 추억, ㉡: 잠겼다 /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용언을 꾸며 준다. 11 ⑤
12 ① 13 ② 14 ② 15 ①

- 01 단어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의 다섯 갈래로 나눌 수 있다.
- 02 '기쁘다'는 '기쁘고, 기쁘니, 기쁜'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하고, '앓다'는 '앓고, 앓으니, 앓는'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한다.
- 03 기능을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할 때 '앗'은 독립언, '활짝', '모든', '온갖'은 수식언, '우리', '철수', '하나'는 체언, '달리다', '예쁘다'는 용언, '까지'는 관계언에 속한다.

04 '걱정'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이고, '지갑', '무지개', '숨사탕', '한라산'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이다.

05 ㉠은 '그림', ㉡은 '모르는 사물', ㉢은 '지윤', ㉣은 '현관문'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때'는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06 ④의 '세'는 뒤에 오는 명사 '순가락'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므로 수식언인 관형사이다.

07 '시원하니(시원하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건자(건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형용사와 동사는 다른 품사와 달리 문장에서 형태가 변한다.

오답풀이 ②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것은 수식언이다.

③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관계언이다.

④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독립언이다.

⑤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은 체언이다.

08 '깨끗해라(깨끗하다)'는 형용사로, 형용사는 현재형 어미 '-는다/-니다',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없다.

09 ②에서 조사는 '을', '까지'로 2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4개의 조사가 쓰였다.

오답풀이 ① '는', '에서', '와', '를' → 4개

③ '은', '이므로(조사 '이다'의 활용형), '을', '에게' → 4개

④ '부터', '가', '는', '이' → 4개

⑤ '은', '에', '가', '을' → 4개

10 **서술형** ㉠ '옛'은 뒤에 오는 명사(체언) '추억'을, ㉡ '깊이'는 뒤에 오는 동사(용언) '잠겼다'를 꾸며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관형사와 부사는 꾸며 주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

11 ⑤에서 '모든'은 명사(체언) '학생들'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12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① '너'는 대명사이다.

13 조사가 붙을 수 없고,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②에서 '이'는 명사(체언) '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4 ㉠ '친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15 '새'는 뒤에 오는 명사(체언) '운동화'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부사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명사는 '영희', '운동화', '학교'로, 모두 세 개이다.

④ 형태가 변하는 품사는 동사인 '신고(신다)', '신나게(신나다)', '뛰어갔다(뛰어가다)'로, 모두 세 개이다.

⑤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는 조사로, 제시된 문장에서 '는', '를', '로'가 조사에 해당한다.

상호 작용적 매체와 소통

활동

107~115쪽

탐구 107쪽 그림말, 링크

108쪽 사진, @, #, 실시간

109쪽 주소, 링크, 게시판, 조회 수

111쪽 그림말, 공적, 불특정, 개인적

112쪽 예의, 회원 가입, 계정

113쪽 성격, 게시판, 사적, 일대일

적용 114쪽 대화방

115쪽 공적

학습목

114쪽

장소, 쌍방향, 공적, 개방적

간단 체인 활동 문제

107~115쪽

107쪽 01 ① 02 ④ 03 링크

108쪽 04 ⑤ 05 ① 06 해시태그(#)

109쪽 07 ④ 08 ③ 09 ③

110쪽 10 ⑤ 11 ③ 12 쌍방향

111쪽 13 ① 14 ② 15 공적, 사적

112쪽 16 ⑤ 17 ①

113쪽 18 ⑤ 19 ④ 20 '@' 기호

114쪽 21 ④ 22 ①

115쪽 23 ① 24 ④ 25 목적, 공간

01 문자 외에도 프로필 사진, 그림말, 링크 등 여러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

02 그림말은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낌이나 감정을 문자 대신 간단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03 수아는 강아지를 본 곳의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려 주기 위해 지도 링크를 보내 주었다.

04 정민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하여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도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해시태그로 '#행복_공원', '#강아지', '#강아지들_찾습니다'를 달아 게시 글의 접근성을 높였다.

② 사진 속 강아지를 본 사람은 댓글이나 일대일 대화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③ 강아지의 모습이 잘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고, 강아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게시했다.

④ '@' 기호를 활용하여 '강아지들_찾습니다' 계정에 연결 가능하다.

05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게시 글을 올려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댓글을 달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한다. 즉,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06 해시태그는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 기호를 붙여 게시 글에 대한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07 자원봉사자 모집 게시 글을 조회한 인원과 추천을 누른 인원은 알 수 있으나 자원 봉사 활동을 신청한 인원은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원봉사 활동으로 ‘보호실 청소 및 관리’를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② 자원봉사 활동 시간은 ‘매주 토요일 10:00~14:00’이다.

③ 자원봉사 신청 방법은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⑤ 자원봉사 모집 글을 작성한 날짜는 ‘20○○년 ○○월 ○○일’임을 알 수 있다.

08 이 자료는 누리집으로 다른 사람이 첨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고, 댓글을 통해 게시자와 참여자가 소통할 수 있다. 또한 게시판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오답 풀이 나. 여러 방법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 글에 접근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09 친구와 약속 장소를 정하는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누리집보다는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상호 작용적 매체는 문자,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직접 만나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11 정민은 강아지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온라인 대화방보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도 온라인 대화방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져올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⑤ 온라인 대화방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입력할 수 있으며, 쓴 글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2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13 (가)는 누리집으로,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행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주된 목적이다. (가)는 글, 문서 등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소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가)는 회원 가입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④ (나)는 단체 대화방으로, 주로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나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행사 안내에 대한 공유처럼 온라인 대화방에서도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⑤ (나)는 친밀한 관계의 친구들이랑 의사소통하는 단체 대화방이다.

14 (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일반적으로 문자, 그림말, 프로필 사진, 링크 기능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 간에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나)에서 첨부된 문서를 눌러 자료를 내려받는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다.

15 (가)와 (나)의 소통 맥락을 고려할 때, (가)는 공적인 행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주된 목적이고 (나)는 사적인 대화가 주된 목적이다.

16 (가)는 공적인 상황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누리집이어서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한 반면,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글이기 때문에 (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③ 사용하는 매체와 형식만 바뀌었을 뿐, 독도 사랑 행사의 활동 내용이나 참여 자격과 같은 정보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④ 해시태그를 통해 게시 글의 접근성을 높였다.

17 민수는 정보 전달 대상이 전교생이므로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매체인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혜는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체인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가)는 공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된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이다. (가)의 작성자는 소통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적인 공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19 (나)에서 하준은 친구와 다룬 사적인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였다. 하준은 개인 온라인 대화방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내의 일대일 대화 기능을 활용하여 친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20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 기호를 활용하여 특정 사람이나 단체 등의 계정을 언급하거나 연결할 수 있다.

21 (가)의 작성자는 누리집의 여러 게시판 중 학교생활과 관련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게시할 수 있는, 누리집의 다른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1학년 1반 공지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온라인 대화방의 유형 중 단체 대화방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의사소통의 맥락과 목적, 소통 공간의 특성,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속도는 소통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할 때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 24 광고성 글은 온라인 강의 Q&A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소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 25 이때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 압축 파일

117쪽

- ① 쌍방향 ② 실시간 ③ 공적 ④ 그림말 ⑤ 사적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18~119쪽

- 01 ② 02 ⑤ 03 ① 04 누리집의 주소를 직접 복사하여 전달하거나 게시 글의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결된 링크를 통해 해당 누리집의 게시 글에 접근할 수 있다. 05 ⑤
- 06 ① 07 ⑤ 08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글을 게시하였다.
- 01 (가)~(다)는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대면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며,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02 (가)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온라인에서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체이다. ⑤ 원하는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 대개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다) 누리집의 특징이다.
- 03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자신이 쓴 글을 쉽게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04 **시술형** (다)는 누리집으로, 누리집은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누리집의 링크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자료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05 제시된 자료는 누리집으로, 공유 기능을 활용하지 않아도 누리집의 주소를 복사해서 전달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심 있는 누리집에 접근할 수 있다.
- 06 누리집의 자료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게시글로 바꾼 것으로 소통 공간이 달라졌을 뿐, 게시 글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 07 (가)와 (나) 모두 댓글을 통해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08 **시술형**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고, (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친구와 개인적으로 다룬 일에 대한 글을 올렸다.

120~123쪽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 01 ③ 02 ④ 03 ② 04 ㉠ 대명사, ㉡ 관형사
05 ③ 06 ② 07 ④ 08 ④ 09 ④ 10 ②
11 ③ 12 ② 13 ① 14 '느리자'는 형용사로, 형용사는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 ⑤
16 ④ 17 ③ 18 ⑤ 19 ⑤ 20 ② 21 ②
22 ② 23 ③ 24 <보기>의 상황은 소통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공적 정보를 특정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였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부적절하다. 따라서 학교 공식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01 ㉠은 수식언, ㉡은 체언, ㉢은 용언, ㉣은 관계언, ㉤은 독립언으로, <보기>는 단어를 기능에 따라 나눈 것이다.
- 02 '손가락', '필통'은 명사, '저희', '여러분'은 대명사, '셋', '서넛'은 수사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으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홀로 쓰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②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 수식언인 관형사와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⑤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이고,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도 활용이 가능하다.
- 03 제시된 문장에서 수사는 '하나', '열'로 모두 2개이다.
- 04 **시술형** ㉠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은 명사 '사실'을 꾸며 주는 수식언인 관형사이다.
- 05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명사이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 명사끼리 묶인 것은 ③이다.
오답 풀이 ① '사과'는 명사, '셋째'는 수사, '어머'는 감탄사이다.
② '천재'는 명사, '매우'는 부사, '우리'는 대명사이다.
④ '너희'는 대명사, '행복', '어머니'는 명사이다.
⑤ '누구'는 대명사, '세종 대왕'은 명사, '하나'는 수사이다.
- 06 형용사는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 현재형 어미 '-는다/-니다'를 붙여서 활용할 수 없다. ② '착해라'는 형용사 '착하다'를 명령형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이다.
- 07 '모든'은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① '한'은 뒤에 오는 명사 '번'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②, ③ 관형사는 '모든'과 '한' 두 번 쓰였으며, 부사는 '모름지기' 한 번 쓰였다. 따라서 관형사가 부사보다 더 많이 쓰였고, 모두 세 개의 수식언이 사용되었다.
⑤ '모름지기'는 '사리를 따져 보건대 마땅히, 또는 반드시.'라는 뜻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08 ㉡ '특별하고'는 형용사이다.

09 제시된 문장에서 조사는 ‘만’, ‘에’, ‘는’, ‘이다’로, 모두 체언 뒤에 붙었다.

10 ② ‘천천히’는 동사 ‘먹고(먹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풀이 ① ‘얇아서’는 형용사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③ ‘아버지’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이다.
 ④ ‘데굴데굴’은 뒤에 오는 동사 ‘굴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푸른’은 형용사 ‘푸르다’의 활용형으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11 ㉠의 ‘여보세요’, ㉡의 ‘응’, ㉢의 ‘앗’, ㉣의 ‘이런’은 모두 감탄사로,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에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12 ‘흔든다’와 같은 용언을 수식할 수 있고, ‘빨리’와 같은 부사를 수식할 수 있으며, 문장 앞에 위치하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부사이다. 부사는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며, 문장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오답풀이 ① 부사는 ‘아기가 잘도 잔다.’, ‘무척이나 보고 싶었다.’와 같이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③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조사이다.
 ④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⑤ 국어사전에서 기본형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활용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이다.

13 ㉠은 ‘좋아한다’ 1개의 용언이, ㉡은 ‘새로운(새롭다)’, ‘왔어(오다)’ 2개의 용언이 쓰였다.

14 **고난도 서술형** 형용사는 현재형 어미 ‘-는다/-니다’,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없다.

평가 목표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조건〉을 충족하며 형용사의 활용을 바르게 쓴 경우 [상]
	✓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며 형용사의 활용을 쓴 경우 [중]
	✓ 〈조건〉과 관계없이 형용사의 활용을 쓴 경우 [하]

15 글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로 표현하는 매체는 (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다) 누리집은 공적인 성격의 정보 전달이나 단체의 업무,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6 (가)는 온라인 대화방,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다)는 누리집으로 모두 비대면 상호 작용이 가능한 매체이며 문자,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소통한다. 반면, 억양, 손짓, 몸짓 등의 표현 방법은 대면 상황에서 주로 활용된다.

17 (가)의 온라인 대화방은 온라인에서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체이다. 정보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주로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대화방의 유형에 따라 일대일 또는 다수와 동시에 소통이 가능하다.

오답풀이 ㉠, ㉡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소통의 주요 목적이고,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소통 방식이나 올릴 수 있는 글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은 (다) 누리집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8 [A]는 그림말로, 그림말은 대화 내용을 강조하거나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감정이나 느낌을 문자 대신 간단하게 전달해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면대면 상황과 유사한 소통 환경을 조성해 주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소통 참여자 간의 친밀감을 높여 준다.

19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하다.

20 (다)는 누리집으로 각종 정보의 교환, 질의응답, 게시물 검색 등이 가능하며, 주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 ②와 같은 개인적인 내용을 누리집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 제시된 자료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친구와 개인적으로 다룬 일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와 같은 글은 단체 대화방이 아닌 개인 대화방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내의 일대일 대화 기능을 활용하여 친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게시 글의 ‘좋아요’를 나타내는 하트에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요’를 누른 친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댓글에서 서진이 ‘@찬혁’이라고 하여 ‘@’ 기호를 활용해 다른 친구를 언급하고 있다.
 ④, ⑤ 친구와 있었던 개인적인 일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 누리집은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소통 방식이나 올릴 수 있는 글의 내용이 달라진다. 박물관 이용의 불편한 점을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린 것은 게시판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박물관 이용 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건의할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누리집의 다른 게시판을 활용해야 한다.

23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한 소통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술적인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상황, 목적, 수용자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통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24 **고난도 서술형** 〈보기〉의 상황은 학급 회의 시간 변경이라는 공적 정보를 소통 맥락에 맞지 않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경우이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공식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평가 목표	소통 방식의 적절성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조건〉을 충족하며 소통 방식의 적절성을 바르게 쓴 경우 [상]
	✓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며 소통 방식의 적절성을 쓴 경우 [중]
	✓ 〈조건〉과 관계없이 소통 방식의 적절성을 쓴 경우 [하]

4 갈등을 푸는 지혜



문학과 갈등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26쪽

01 (1) ○ (2) × (3) ○ 02 갈등 03 ③

- 01 (2)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일정한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성을 지닌다. 운율은 소설이 아닌 시의 특성이다.
- 02 문학에서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또는 인물과 인물, 인물과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의미한다.
- 03 홍길동의 바람과 그가 속한 사회의 신분 제도가 대립하면서 일어난 갈등이므로 인물과 그 인물이 속한 사회 간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학습곡

127~138쪽

- 128쪽 쌍안경, 거스름돈, 불안함
131쪽 거스름돈, 숙모, 두려움, 기쁨, 삼촌
133쪽 부끄러움, 죄책감
135쪽 도적질, 거스름돈, 거짓말
136쪽 양심, 죄책감, 점순
137쪽 마음, 부끄러움, 내적 갈등
138쪽 교통사고, 하늘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27~138쪽

- 127쪽 01 ③ 02 ① 03 그리고, 아닌가
128쪽 04 숙모가 준 돈이 일 원이 맞는지 헛갈려서 먼저 숙모에게 알아보기 위해서 05 ② 06 ③ 07 ⑤
129쪽 08 ⑤ 09 환등 기계를 사서 용돈을 마련하는 것 10 ②
130쪽 11 ① 12 솔직히 말하면 혼날까 봐 13 ⑤
131쪽 14 ② 15 ③ 16 ④
132쪽 17 ④ 18 수만이 환등 틀을 사러 가자고 나타났다.
19 ② 20 ②
133쪽 21 ③ 22 수만이 문기를 괴롭힐 것이다.
134쪽 23 ② 24 경찰서(파출소) 25 ③ 26 ②
135쪽 27 ① 28 ③ 29 울음소리 30 ②
136쪽 31 ③ 32 ④ 33 ② 34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
137쪽 35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
었다. 36 ① 37 ④
138쪽 38 ② 39 ④ 40 하늘

01 (나)를 통해 며칠 전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으로 지진 한 장을 받아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러 삼거리 고깃간에 갔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문기는 숙모의 손에 공이 들어갔을까 봐 숙모의 눈치를 살필 뿐, 평소 문기가 숙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문기는 공이 숙모의 손에 들어갔을까 봐 걱정할 뿐, 공이 없는 것 자체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④ 문기는 작은아버지에게 혼이 날 것이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을 뿐, 사이가 좋지 않은지는 알 수 없다.

⑤ 문기는 고깃간에서 숙모가 준 돈으로 고기를 샀으므로 고깃간에서 숙모의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에서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에게 들켰을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03 (나)에서 문기는 고기를 사고 받은 거스름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

04 문기는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처음 숙모가 준 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05 숙모가 문기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숙모를 시험하는 듯한 행동을 하도록 문기를 부추긴 것으로 보아, 수만은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6 숙모가 잔돈을 세어 보고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은 문기가 준 잔돈이 자신이 준 돈에 대한 거스름돈으로 적당했기 때문이다.

07 수만은 숙모가 아무 말 없이 잔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만족하고 있다.

08 수만은 문기가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온갖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수만이 문기의 돈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09 문기와 수만은 환등 기계를 사서 아이들에게 일 전씩 받아 구경을 시키고, 용돈에 주리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10 ㉠은 문기가 숨겨 두었던 공을 삼촌에게 들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문기와 수만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11 (마)에서 삼촌은 문기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있다. 이를 통해 문기에 대한 믿음이 깊은 삼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2 문기는 공과 쌍안경이 어디서 났냐고 묻는 삼촌에게 혼날까 봐 수만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3 (사)에서 문기는 삼촌의 훈계를 들은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14 공과 쌍안경을 집어 들고 나간 문기는 쌍안경을 길바닥에 떨어뜨리고 물 위로 공을 던져 버렸다. 이를 통해 문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오답풀이 ① 문기는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

- ③ 문기는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그 공을 남이 볼까 두려워했다.
- ④ 문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과 쌍안경, 남은 돈을 처리하려고 했을 뿐, 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수만을 만나러 가지는 않았다.
- ⑤ 문기는 나머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을 뿐, 주인에게 사과를 한 적은 없다.

- 15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볼까 두려워했지만,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난 후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통쾌함을 느꼈다.
- 16 문기는 죄책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이 다른 사람의 눈에 더 잘 띄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 17 (자)에서 문기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수만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18 문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조한 환등 틀을 사러 가자고 찾아온 수만을 만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9 돈이 없다는 문기와 문기의 말을 믿지 않는 수만 사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 20 문기는 수만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상만 지었다. 이를 통해 문기가 소심하고 순진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21 문기는 남은 돈이 없다고 했으나, 수만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돈을 혼자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남은 돈을 가져오라고 문기를 협박하며 괴롭히는 것이다.
- 22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수만이 믿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은 수만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문기를 만나 괴롭힐 것임을 암시한다.
- 23 문기에게 남은 돈을 받아 내려고 문기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수만의 모습에서, 수만의 집요하고 비열하면서 대범하고 교활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수만이 섬세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24 ㉠은 수만이 문기에게 물건을 훔친 사람이 붙들려 가는 곳이라고 협박하는 장소이다.
- 25 ㉠에서 문기는 수만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자신의 잘못이 통날까 봐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있다. 문기가 후련함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26 문기는 수만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숙모가 불장 안에 둔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었다. 이를 '두 번째 허물'을 범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 27 (타)에서 숙모의 돈을 훔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기는 '값으면 고만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여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28 점순이 돈을 훔쳤다는 말이 그 집까지 들어가서 결국 점순은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났다.

오답풀이 ① 숙모는 문기에게 불장 안의 돈을 보았느냐고 물었다가 곧바로 점순이 가지고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문기를 의심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불장 안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은 문기이다.
- ④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자연스럽게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그 집까지 들어갔다고 하였으므로 숙모가 아랫집에 가서 직접 점순의 말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동네 아이들이 모여 점순의 잘못을 소문냈을 뿐, 문기가 함께 소문을 낸 것은 아니다.
- 29 문기는 아랫방 들창 밑에서 들리는 훌쩍훌쩍 우는 점순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30 문기는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쫓겨난 점순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31 수신 시간, 정직을 가르치는 선생님, 맑고 푸른 하늘,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은 모두 문기의 어두운 마음과 대비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은 죄책감으로 괴로운 문기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숨은 공간이다.
- 32 문기는 죄책감 때문에 하늘을 몇몇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하늘은 맑고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는 것은 하늘의 속성과 관련이 없다.
- 33 문기는 선생님이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을 다 알고 있는 것같이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문기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속담으로는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도둑이 제 발 저리다'가 어울린다.
- 오답풀이** ①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기억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사람이 글자를 모르거나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겉으로는 양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단장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34 문기는 정직하지 못한 자신은 몇몇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은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 35 문기는 선생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 36 문기는 답임 선생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온 후, 죄책감이 더욱 커져서 이전보다 마음이 더 무겁고 쑥스럽다고 하였다.

- 37 문기는 자백하려고 용기를 내서 선생님 집에 갔으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어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 38 문기가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받은 일은 이후 문기가 겪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되지만, 문기가 저지른 잘못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39 교통사고를 당한 문기는 눈을 뜨자마자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양심을 회복하며 갈등을 해소하였다.
- 40 ‘하늘’은 죄책감으로 인해 어두운 문기의 마음과 대조되는 대상으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양심 등을 상징한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27~138쪽

- 127쪽 (1) 빈탕 (2) 둥구미 (3) 도시
- 130쪽 (1) 열리다 (2) 뒤뚱 (3) 허물
- 133쪽 (1) × (2) ○ (3) ○

활동

140~145쪽

- 탐구** 삼촌, 협박, 자백, 소심, 이익, 애정, 불장, 잘못, 죄책감, 양심, 담임 선생님
- 적용** 오해, 이빨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40~145쪽

- 140쪽 01 ② 02 ② 03 거스름돈
- 141쪽 04 ③ 05 ② 06 조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 142쪽 07 ④ 08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수만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09 ②
- 143쪽 10 ② 11 ③ 12 ②
- 144쪽 13 ④ 14 ②
- 145쪽 15 ② 16 ② 17 ②

- 01 삼촌은 수만에게 공과 쌍안경을 받았다는 문기의 말을 듣고, 성실하지 못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훈계를 하였다.
- 02 이 글에는 문기의 내적 갈등, 문기와 수만의 갈등이 나타난다. 문기와 점순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문기는 삼촌에게 훈계를 듣지만 두 사람이 겉으로 충돌하고 있지는 않다.
- 03 이 소설은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갔다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

- 04 끈질기고 집요한 면이 있는 인물은 수만이다.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기를 괴롭히는 수만의 모습에서 이러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05 자신의 돈이 아닌데도 돈을 내놓으라며 문기를 따라다니고 협박하는 수만의 모습에서 비열한 성격을 알 수 있다.

- 06 삼촌은 문기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문기를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한다.

- 07 문기가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진 것은 삼촌에게 혼이 난 뒤 자신의 죄책감을 털기 위한 행동이다.

오답풀이 ① 수만은 문기가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는 말을 믿지 않고 문기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② 삼촌에게 혼이 난 문기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껴 공과 쌍안경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③ 고깃간 주인이 거스름돈을 잘못 거슬러 준 것을 알았는지는 이 소설에서 알 수 없다.

⑤ 문기는 수만과 환등 기계를 사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문기가 공과 쌍안경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 08 문기는 남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져 돈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며 문기를 협박하는 수만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 09 문기는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었다.

- 10 문기는 자신이 숙모의 돈을 훔친 것 때문에 점순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점순은 자신도 모르게 누명을 썼을 뿐, 문기의 잘못을 숨겨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③ 숙모가 같이 일을 하다가 집에 간다고 나선 점순이 돈을 훔쳤을 것이라 오해한 것일 뿐, 문기가 점순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운 것은 아니다.

④ 문기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점순의 울음소리를 듣고 점순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았을 뿐, 점순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소문을 내지는 않았다.

⑤ 점순은 골목에서 훌쩍훌쩍 울기만 했을 뿐, 문기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치지 않았다.

- 11 ‘하늘’은 문기의 어두운 마음과 대조되는 대상으로, 문기가 회복하고 싶은 양심, 죄책감이 없는 정직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 등을 의미한다.

- 12 문기는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온다. 이로써 문기의 죄책감은 더 커지며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 13 문기는 수만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기에게는 어른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 보라는 조언이 적절하다.

- 14 삼촌의 훈계를 들은 후, 문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 따라서 남은 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삼촌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15 마시멜롱들이 털송송이의 “이파라파나무나무”라는 말을 “너희들을 낚낚 맛있게 먹겠다.”라는 뜻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 16 어린 마시멜롱이 털송송이를 찾아가 “이파라파나무나무”가 “이빨 아파 너무너무.”라는 말임을 알아내면서 오해가 풀리고, 마시멜롱들이 털송송이의 이빨을 치료해 주었다.
- 17 마시멜롱들은 털송송이의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공격하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마시멜롱들은 처음에 털송송이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 ③ 털송송이가 마시멜롱들을 배려하지 않고 큰소리를 내긴 했지만, 마시멜롱들에게 잘못을 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의 잘못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마시멜롱들은 서로 힘을 합치고 있을 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
- ⑤ 큰소리를 낸 것은 털송송이이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압축파일

147쪽

- ① 반성 ② 누명 ③ 자백 ④ 삼촌 ⑤ 내적 ⑥ 양심
⑦ 소심 ⑧ 죄책감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48~150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④ 05 ③ 06 ②
07 ① 08 숙모의 돈을 훔친 것 09 ③ 10 ⑤
11 문기는 작은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은 후 마음이 가벼워진다. 12 ③ 13 ③

-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로, 인생에 대한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은 소설이 아닌 수필의 특징이다.
- 02 삼촌의 훈계를 듣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문기는 공을 물 위로 던져 버리면서 죄책감을 덜고자 하였다.
- 03 (라)에서 문기는 삼촌의 훈계를 들은 후, 써서는 안 될 돈을 쓴 일과 삼촌의 숙인 일에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문기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04 ㉠은 두 소년(문기, 수만)이 함께 쓰기로 뜻을 모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문기와 수만이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답 풀이 ① 문기와 수만이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돈을 쓰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② 두 소년의 관심사가 비슷한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고, 둘이 손이 맞게 된 것은 수만과 문기 모두 돈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③ 두 소년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돈이 생긴 것은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갔다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므로, 두 소년이 함께 심부름을 하다가 생긴 돈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5 (다)에서 문기가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었으나, 수만이 문기에게 돈을 훔치라고 지시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06 (다)에서 문기는 수만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에게 주었다. 따라서 문기가 숙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07 수만의 괴롭힘에 휘둘리며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기의 모습에서 문기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08 **서술형** (다)에서 문기는 수만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에게 주었다. ‘두 번째 허물’은 이러한 문기의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

- 09 ㉠, ㉡, ㉣, ㉤은 모두 문기가 저지른 잘못과 관련 있으며 문기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은 수만이 문기를 괴롭히기 위해 사용한 도구로, 문기의 죄책감과 관련 없다.
- 10 ‘맑은 하늘’은 맑고 깨끗한 마음과 양심,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기의 어두운 마음과 대비되는 소재이다.
- 11 **서술형** 문기는 작은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한다. 그러면서 문기는 허물이 한 꺼풀 한 꺼풀 벗어지면서 마음속의 어둠이 차차 사라지며 맑아진다고 느낀다.

12 문기가 선생님에게 자백할 결심을 한 것만으로는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문기는 선생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지 못하였다.

13 문기는 수신 시간에 정직에 관한 선생님의 말씀이 자신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처럼 들려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선생님은 문기만 쳐다보지 않았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문기가 그렇게 느낀 것이다.

② 선생님이 평소에도 무서운 성격인지는 이 글을 통해 알기 어렵다.

④ 선생님은 수신 시간의 수업 내용인 ‘정직’에 관해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문기에게는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진 것이다.

⑤ 선생님은 문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



토의하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51쪽

01 (1) × (2) ○ (3) × 02 토의 준비하기 03 ④

- 01 (1) 토의의 목적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에 있다.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말하기이다. (3) 토의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사람은 사회자가 아니라 청중이다.
- 02 토의 유형과 각자 토의에서 말을 역할을 정하고, 토의에서 제시할 의견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 03 토의는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이므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발언 기회를 요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52~156쪽

152쪽 01 ② 02 합리적, 해결책 03 ⑤

153쪽 04 ③ 05 ④ 06 ④

154쪽 07 ③ 08 친한 친구와 함께 앉으면 수업 시간에 떠들게 될 수 있다. 09 ⑤

155쪽 10 ④ 11 ⑤ 12 같이 앉을 친구가 없어 마음을 다치는 친구가 생길 수 있다.

156쪽 13 ② 14 공평하면서도 친구들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5 ①

- 01 (가)는 토의의 일반적인 절차 중 첫 번째 순서인 '토의 주제 정하기' 단계로, 토의 주제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정해야 한다.
- 02 (가)에서 민준과 친구들은 교실에서 번호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서 불편했던 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토의를하기로 하였다.
- 03 '패널 토의'는 토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패널(토의자)들이 의견을 교환한 후,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04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서 토의자는 토의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고, 토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를 정리해야 한다.
- 05 은우는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고, 패널이 아닌 친구들은 청중이 되어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널 토의를 제안하였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원탁 토의의 특징이다.

06 (가)에서 사회자인 민준은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한 후, 토의자에게 차례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07 (다)에서 은우는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자고 하였다. 긴장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지아가 제안한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다.

오답풀이 ①, ② (나)에서 서연은 서로 마음이 잘 맞거나 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과 앉으면 활동하는 과정도 수월하고, 활동의 결과물도 훨씬 좋았으며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④ (다)에서 은우는 아침 일찍 오는 노력에 따라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며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⑤ (라)에서 지아는 어떤 기준이든 자리를 정하고 나면 그 후에는 다양한 까닭으로 불편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08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는 서연의 제안에 대해 지아는 친한 친구와 같이 앉으면 이야깃거리가 많아 수업 시간에도 떠들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09 (바)에서 서연은 언성을 높이면서 은우의 의견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토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10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은우의 제안에 대해 지아는 먼저 온 친구가 친한 친구와 앉고 싶어서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둘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1 (아)~(자)에서 청중인 은서와 하운은 토의자들의 의견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이러한 청중의 질문은 토의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하게 하여, 토의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12 서연은 은서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같이 앉을 친구가 없어서 마음을 다치는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13 유찬의 질문에 대해 지아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 친구는 미리 조사하여 자리 배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14 (차)에서 은우는 지아와 서연이 제시한 대안을 반영하면 추첨이 공평하면서도 친구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15 토의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협력적인 말하기로, 승패가 따로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자인 민준이 토의에서 승리한 패널을 밝히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민준은 오늘 토의를 통해 추첨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토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하였다.

③ 민준은 청중을 둘러보며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하였다.

④ 민준은 자리를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자리를 추천하는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고 하였다.

⑤ 민준은 토의의 참여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겠다고 하였다.

* 활동

157~160쪽

탐구 교실, 추천, 주제, 갈등, 요약, 근거, 질문, 감정, 문제점

적용 웃

학습목

159쪽

역할, 청중, 진행, 근거, 경청, 협력, 수용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57~160쪽

157쪽 01 ⑤ 02 추천으로 정하자, 지아 03 ④

158쪽 04 ⑤ 05 ② 06 ⑤

159쪽 07 청중과의 질의응답 08 ③

160쪽 09 ③ 10 ①

01 은우는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오답 풀이

① 토의록에서 3명의 토의자(패널)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3~6명의 패널들을 미리 정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것은 패널 토의이다.

② 토의록에서 토의 주제가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라고 제시되어 있다.

③ 토의록 마지막 부분에서 토의 결과가 자리를 추천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서연은 모둠 활동 과정의 수월함과 결과물의 완성도를 근거로 하여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모둠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02 지아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긴장감을 느끼면서 즐겁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을 제안하였다.

03 ㉠에서 사회자는 토의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토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4 전체적인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다.

05 ㉠에서 서연은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토의에 참여할 때 예의를 갖추어 발언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06 토의를 통해 마련한 해결 방안을 수용하고,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면 다음 토의에서 개선 방향을 의논하도록 해야 한다.

07 패널 토의에서 토의자 간 의견 교환의 다음 단계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이다. 이 단계에서는 토의 내용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토의자가 응답한다.

08 토의 과정에서 토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09 장기관 보존이 가능하고 도구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초콜릿, 비스킷 등의 비상식량이다. 구급약은 다쳤을 때 응급 치료를 하여 더 큰 부상을 막는 데 필요하다.

10 토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모든 토의 참여자가 협력하여 찾은 최선의 해결 방안이므로,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압축 파일

162쪽

① 협력적 ② 사회자 ③ 해결 방안 ④ 질문 ⑤ 주제
⑥ 선착순 ⑦ 토의자 ⑧ 추천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63~164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⑤

07 같은 자리에는 일정 기간 앉지 못하는 규칙을 만들면 특정 학생이 고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01 토의는 일반적으로 '토의 주제 정하기 → 토의 준비하기 → 토의 의하기 → 토의 내용 정리하기'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말하기이다. 또한 토의하기 단계에서도 패널 토의와 같이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토의 유형도 있다.

02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은우의 제안에 대한 근거이다. 서연은 짝이나 모둠이 함께 하는 활동을 할 때 활동하는 과정이 수월하고 활동의 결과물도 훨씬 좋으며, 어려운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03 (가)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은 민준은 토의를 하게 된 배경과 토의 주제,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면서 토의자들에게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청중은 따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

04 이 토의에서 은서와 하운은 청중으로 참여하여 토의자들의 의견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다.

- 05 (나)~(다)는 패널 토의의 절차 중에서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이 질문하고 이에 대해 토의자가 대답하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이다.

오답풀이 ① 사회자가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토의의 시작 부분인 ‘토의 주제와 토의자 소개’ 절차에 해당한다.

② 사회자가 토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는 것은 토의의 끝 부분인 ‘토의 마무리’ 절차에 해당한다.

③ 토의자 간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토의자 간 의견 교환’ 절차에 해당한다.

④ 토의자들이 토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토의자의 제안’ 절차에 해당한다.

- 06 (가)에서 서연은 은우의 의견을 비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하는 발언은 자제하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 07 **서술형** 대부분의 학생이 선호하는 몇몇 자리에 일찍 오는 특정 학생들만 계속 앉게 될 수 있다는 하운의 의견에 대해, 은우는 같은 자리에는 일정 기간 앉지 못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65~167쪽

- 01 ⑤ 02 ① 03 ③ 04 ① 05 ④ 06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
07 ② 08 ④ 09 ③ 10 ④
11 ④ 12 ⑤ 13 ㉠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협력적인 토의 분위기의 조성을 방해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게 한다.

- 01 (나)에서 문기는 고깃간에서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자는 수만의 제안에 머뭇거렸으나, 가지고 싶고 해 보고 싶은 것을 하고 싶던 문기는 (라)를 통해 결국 돈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다)의 삼촌의 말에서 문기의 어머니는 어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삼촌은 문기에게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문기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문기는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아 심부름으로 고기를 샀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삼촌의 꾸중을 들은 문기는 (라)에서 삼촌을 속인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다.

- 02 (나)에서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자고 하는 수만의 말에 망설이며 걱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기가 소심하고 순진한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03 (라)에서 문기는 삼촌을 속이고 써서는 안 될 돈을 썼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으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 04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기 한 근을 사러 갔던 문기가 거스름돈을 많이 받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5 (가)에서는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를 괴롭히는 수만과 문기 사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나)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 06 **서술형** (나)에서 문기는 어둡고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죄책감을 느끼며 뿔뿔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문기의 심리를 의미한다.

- 07 [A]에서 문기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뿔뿔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수만은 문기가 자신을 빼고 혼자서만 돈을 쓰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문기를 괴롭히고 있다.

- 09 ‘하늘’은 문기의 어두운 마음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 양심, 죄책감이 없는 마음 등을 의미한다. 문기는 이러한 하늘을 뿔뿔이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하였다.

- 10 (나)에서 서연은 추천으로 자리를 정했을 때에도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민준은 오늘 토의를 통해 추천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서연은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에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며, 이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③ (나)에서 지아는 유찬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리 조사하여 자리 배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에서 유찬은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특정한 자리에 앉아야 하는 학생을 걱정하며, 지아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 11 사회자인 민준은 (가)에서 서연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자 이를 제지하며 토의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ㄷ), (다)에서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ㄴ).

- 12 (나)에서 지아는 신체적인 특성으로 특정한 자리에 앉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유찬의 질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 친구는 미리 조사하여 자리 배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3 **고난도 서술형** ㉠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토의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협력적인 토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게 한다.

평가 목표	토의 참여 시 올바르게 못한 태도의 문제점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에 드러난 말하기 태도의 문제점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 ㉠에 드러난 말하기 태도의 문제점을 썼으나, <조건>에 맞게 쓰지 못한 경우 [중]
	✓ ㉠에 드러난 말하기 태도를 쓰지 못한 경우 [하]

1 문학과 삶에서 만나는 의미



운율, 비유, 상징의 즐거움

간단 + 복습문제

3쪽

- 꼭지 시험** 01 운율 02 비유 03 구체적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청소년 15 이름 16 가능성
어휘 시험 01 쇠기 02 셈 03 우러러 04 ㉠ 05 ㉠
06 ㉠

- 09 「3월」에서는 산과 들에 쌓인 눈을 ‘하얀 이불’,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자장가’, 파란 싹들을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이른 봄의 풍경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12 「사랑하는 별 하나」에서 ‘길’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의미한다.

- 01 ‘쇠다’는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라는 의미이고, ‘새우다’는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라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쇠기’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 02 ‘셈’은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이고, ‘턱’은 ‘마땅히 그리하여야 할 까닭이나 이치.’라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셈’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4~5쪽

- 01 ④ 02 ④ 03 ⑤ 04 ② 05 생동감 있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06 ⑤ 07 될 수 있을까 08 ④
09 ⑤ 10 ‘아홉’이 의미하는 대상은 ‘청소년’으로, 두 대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01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은 상징이다. 이 시는 상징이 아니라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이른 봄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 02 이 시의 3~4연에서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03 비유를 사용하면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여 인상 깊게 전달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유를 사용한다고 해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04 ㉠에서 ‘자장가’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두 대상을 ‘처럼’을 사용하여 직접 빗대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②로, ‘-듯이’를 사용하여 ‘시간’을 ‘흐르는 물’에 직접 빗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유, ③, ④ 의인, ⑤ 은유가 각각 사용되었다.

- 05 **서술형** ㉠은 ‘파란 싹들’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여, 봄눈이 녹은 자리에 돌아난 ‘파란 싹들’이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생동감 있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06 이 시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별’, ‘꽃’, ‘길’ 등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희망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1연과 2연에서 ‘나도 ~이 될 수 있을까. ~ 주는 ~이 될 수 있을까.’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 07 **서술형** 이 시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라는 시구를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누군가에게 ‘별’, ‘꽃’처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말하는 이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08 이 시에서 ‘별’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위로가 되는 존재, 힘이 되는 존재 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고 가만히 안아 주는 어머니가 적절하다.
- 09 ㉠의 ‘꽃’은 <보기>의 ‘공감하고 포용해 주는 사람’을 상징한다. 상징을 사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추상적 대상을 다른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 10 **서술형** 이 글에서 ‘아홉’은 ‘청소년’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다. 숫자 아홉과 청소년은 부족함이 있지만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6~7쪽

- 1단계** 01 조용한(포근한) 분위기 02 하얀 이불 03 직유
04 마음 어두운 밤 05 앞으로 살아갈 날들 / 나아가야 할 방향 /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 2단계** 06 (가)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을 반복하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반면, <보기>는 같은 호흡을 반복하여 각 장을 네 번 끊어 읽음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07 (가)의 [A]에서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가 사용되었다. 08 (나)에서 ㉠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며, 외로울 때 힘이 되는 존재를 갖고 싶다는 의미이다.
- 3단계** 09 봄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싹들’이 돌아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B]와 <보기>는 비슷하다. 그러나 <보기>는 [B]에서 사용된 직유와 의인이 주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파란 싹들’이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덜하다. 10 (나)에서 ‘별’, ‘꽃’은 외롭고 쓸쓸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1단계

- 01 (가)의 전반부인 1~4연에서는 봄눈이 내려 산과 들에 쌓이고 골짜기의 물소리만 나직하게 들리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02 (가)에서는 '산과 들에 쌓인 하얀 눈'을 '하얀 이불'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산과 들에 쌓인 눈'과 '하얀 이불'은 하얗고 어떠한 대상을 덮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 03 (가)의 7연에서 '잠자리에서 / 뛰어나온 / 아이들'은 '파란 싹들'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다. 따라서 '처럼'을 사용하여 두 대상을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가 사용되었다.
- 04 (나)의 말하는 이는 현재 외롭고 쓸쓸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음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말하는 이의 부정적 상황이 드러난다.
- 05 (나)에서 '길'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상징하며, 말하는 이는 이러한 '길'을 비추어 줄 존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단계

- 06 (가)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에'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을 반복하고, '핑 핑, 나죽 나죽, 좌아악, 왁자지껄'과 같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각 장을 네 번씩 끊어 읽음으로써 일정한 호흡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7 (가)의 [A]에서는 '처럼'을 사용하여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때 사용된 비유의 종류는 직유이다.
- 08 (나)에서 '별'은 외롭고 쓸쓸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며 달래 줄 수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나)의 말하는 이는 ㉠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러한 존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단계

- 09 (가)의 [B]에서는 직유와 의인을 사용하여 봄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싹들'이 돌아난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을 <보기>와 같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시에서 비유 표현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참신함과 생생한 느낌이 줄어든다.

평가 목표	시에 사용된 비유 표현과 그 효과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원래의 시구와 바꾸어 쓴 시구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원래의 시구와 바꾸어 쓴 시구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또는 (가)의 [B]에 사용된 표현 방법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10 (나)에서 '별'과 '꽃'은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나)의 말하는 이는 누군가에게 '별', '꽃'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고 싶은 소망과 이러한 존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평가 목표	시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시의 주제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나)에 사용된 상징적 시어의 의미를 밝히고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삶의 태도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5점]
	✓ (나)에 사용된 상징적 시어의 의미를 밝히고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삶의 태도를 바르게 썼으나 <조건>에 맞게 쓰지 못한 경우 [15점]
	✓ (나)에 사용된 상징적 시어의 의미와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삶의 태도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추론하며 듣기

간단 + 복습 문제

9쪽

쪽지 시험	01 답화	02 상황 맥락	03 의사소통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설득
15 장소	16 압축적	어휘 시험	01 감량하면	02 개정할
03 대여했다	04 ㉣	05 ㉤	06 ㉥	

- 12 「10대가 말하다 연설」에서 초등학교 시절, 화자는 보통의 또래보다 유독 활발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친구들에 의해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화자는 열다섯 살에 데뷔 경기를 치르고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되었다.

- 16 「나부터 5초만」에서는 '5초만'이라는 표현에 5초의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의미를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 02 '개정하다'는 '주로 문서의 내용 등을 고쳐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개정할'이 들어가야 의미상 적절하다.

- 03 '대여하다'는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준다.'라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대여했다'가 들어가야 의미상 적절하다.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0~11쪽

01 ㉡	02 ㉣	03 ㉢	04 ㉤	05 ㉢	06 하지만 여러 분도 저처럼 마음에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 보세요.	07 ㉢
08 ㉢						

- 01 화자의 의도는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같은 말이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ㄱ). 답화는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표현된 발화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 단위를 의미한다(ㄷ).

오답 풀이 L. C. 답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로,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들어야 한다.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은 상황 맥락에 포함되고,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 02 ㉠은 중하가 팔을 다친 민서를 걱정하는 의도에서 한 말로, 민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03 기자의 말과 자전거 이용자 4의 인터뷰에서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대여소에서 안전모를 빌려주지 않아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이 낮아졌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4 기자는 2018년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자의 말에서 추론할 수 있는 대안은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 05 (가)에서 화자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스스로를 원망하였다. 그러나 (다)에서 화자는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생겨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보아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 06 **서술형** 이 연설에서 화자는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하며 시련을 극복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마음에 단단한 근육을 만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 07 (다)에서 화자는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08 다양한 장소에서 “5초만!”이라는 문구는 5초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건널목에서 “5초만!”이라는 말은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여유를 갖고 기다려요.’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12~13쪽

1단계 01 정보 전달, 설득 02 대부분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 03 시합이 끝난 직후의 모습 04 자기 자신 05 마음의 근육

2단계 06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은 있지만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07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하였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08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3단계 09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를 쓰지 않는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안전모 미착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대여소 관계자의 인터뷰를 제시하였다. 10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고, 스스로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생겨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 받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1단계

- 01 (가)는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 보도이고, (나)는 시련을 극복한 화자의 경험을 통해 청중에게 마음의 근육을 만들라고 설득하는 연설이다.
- 02 (가)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03 (나)에서 화자는 예쁜 척을 하고 찍은 사진이 아닌 시합이 끝난 직후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인생 사진이라고 소개하였다.
- 04 (다)에서 화자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그 원망이 자신을 향했다고 하였다.
- 05 (마)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보아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2단계

- 06 (가)에서 기자는 2018년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 07 화자는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된 이후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시합이 끝난 직후의 사진을 자신의 인생 사진으로 제시하여 이처럼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08 (다)에서 화자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을 다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3단계

- 09 (가)에서 기자는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대여소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이용자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미착용 실태 및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목표	정보 전달 답화에서 화자의 의도 추론하기
채점 기준	✓ (가)에서 기자가 보도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 의도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가)에서 기자가 보도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만 바르게 제시한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10 (라)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생겨 시련을 극복한 경험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화자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목표	설득 담화에서 화자의 가치관 추론하기
채점 기준	✓ 화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화자가 조언할 말을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화자의 가치관은 바르게 썼으나 조언하는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14~17쪽

- 01 ⑤ 02 ⑤ 03 '하얀 이불'은 산과 들에 쌓인 눈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두 대상은 하얗고 어떠한 대상을 덮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04 ③ 05 ④ 06 ⑤ 07 ④ 08 ③
09 ⑤ 10 ② 11 ② 12 ④ 13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모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14 ④ 15 ④ 16 ⑤

- 01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비유이다. 이 시는 직유, 은유, 의인과 같은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이른 봄의 풍경을 생동감 있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1~4연에서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5~8연에서 생동감 있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 ③ 이른 봄날 봄눈이 내린 날과 그 다음 날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④ 봄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싹들이 막 돌아나 있는 모습을 '파란 싹들이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 02 이 시는 1연의 3행과 5연의 2행, 2연의 1~3행과 6연의 1~3행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을 반복하고, '핑 핑, 나즉 나즉, 좌아악, 왁자지껄'과 같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3 **고난도 서술형** 이 시에서 '하얀 이불'은 산과 들에 쌓인 눈을 비유한 표현이다. 산과 들에 하얗게 쌓인 눈과 '하얀 이불'의 공통점은 모두 하얗고 어떠한 대상을 덮는다는 것이다.

평가 목표	시에 사용된 비유 표현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모두 밝히고 두 대상의 공통점을 썼으나, '~ 공통점을 지닌다.'의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중] ✓ 원관념과 보조 관념 중 어느 하나를 밝히지 않거나 공통점을 쓰지 않은 경우 [하]

- 04 ①에서는 의인을 사용하여 '파란 싹들'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면 표현하려는 대상인 눈이 녹은 자리에 돌아난 새싹의 모습을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 05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독백적 어조로 자신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 06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고 싶은 소망과 그러한 존재를 갖고 싶은 소망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이 시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로 소망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던 말하는 이의 태도가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의 직접적 제시로 전환되면서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08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꽃'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상징을 사용하면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 외에 여러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작품을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09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으로 구성된다.

- 10 (가)와 (나)에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가)는 남학생이 약속 시간에 늦은 여학생에게, (나)는 시계를 잃어버려 현재 시각이 궁금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 11 담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는 의미로, ㉡에서는 "지금 정확한 시각이 궁금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2 뉴스 보도와 같은 정보 전달 담화를 들을 때,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의견을 위주로 들으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향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13 **서술형** 이 뉴스 보도에서 기자는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자의 말에서 추론할 수 있는 대안은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모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 14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화자는 (다)에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자가 권투를 배우게 되면서 친구들이 더 이상 화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15 ㉠은 화자가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된 후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생긴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화자는 이를 자신의 인생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단단하게 성장한 내면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16 ㉡은 화자가 권투를 배우게 되면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매사에 열정적이고 열심이었던 본래의 성격을 되찾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2 정보를 판단하는 힘



요약하며 읽기

간단 + 복습문제

19쪽

꼭지 시험 01 요약 02 정보 03 인물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어휘 시험 01 매립하여 02 지양하고 03 정교하게 04
㉠ 05 ㉢ 06 ㉤

08 「스마트폰은 나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청소년기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다.

14 「소나기의 유래」는 옛날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인 「민담」에 해당한다.

01 「매립하다」는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등으로 채우다」라는 의미이고, 「소각하다」는 「불에 태워 없애 버리다」라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매립하여」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02 「지향하다」는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다」라는 의미이고, 「지양하다」는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이다. 제시된 문장에는 남의 잘못된 탓하지 말고 자기의 허물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지양하고」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03 「정교하다」는 「숨씨나 기술 등이 정밀하고 교묘하다」라는 의미이고, 「투박하다」는 「생김새가 불품없이 둔하고 튼튼하기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정교하게」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20~21쪽

01 ㉠ 02 ㉢ 03 ㉡ 04 ㉢ 05 ㉡ 06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인다. 07 ㉤

01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인 (라)에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02 ㄱ. (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때문에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ㄴ. (나)에서 청소년기에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ㄴ. 잠을 잘 때 깨어 있는 동안 학습했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ㄷ.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한다고 하였다.

03 (나)의 중심 내용 중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고」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발달하게 된다」는 비슷한 내용이므로,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가)와 (나)는 첫 번째 문장에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으므로 그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세부적인 사례는 글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요약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핵심어 나열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만, 요약에서는 문맥을 고려하여 중심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요약하기 규칙 중 「일반화」에 대한 설명이다.

⑤ 요약하기 규칙 중 「재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05 옷을 만들 때 대부분 거치는 염색 가공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사용되고, 이들은 대부분 물에 섞여 배출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오염수는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물을 오염시킨다.

06 **서술형** 의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물의 양과 한 해 동안 생산되고 버려지는 옷의 양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7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의류를 구입할 때에도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가치 소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친환경적인 의류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22~23쪽

1단계 01 (1) 정보 전달 (2) 설득 02 스마트폰 과의존 03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알려 준다. 04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다. 05 패스트 패션

2단계 06 20%가 넘는 중학생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 것을 드러내는 조사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07 뇌의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 / 뇌가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08 버려진 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 - 선택, 삭제

3단계 09 (가)~(나)는 설명하는 글로 설명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고, (다)~(리)는 주장하는 글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10 (리) 문단,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고, 중고 의류를 사는 등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는다.

1단계

- 01 (가)~(나)는 스마트폰 사용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고, (다)~(라)는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장하는 글이다.
- 02 (가)에서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이 떨어져 건강이나 일상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지 못하는 상태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였다.
- 03 (가)의 마지막 문장 ‘그렇다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뇌 발달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에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4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태우면 이산화 탄소를 비롯한 유독 가스를 내뿜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하였다.
- 05 (라)에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고, 옷이 필요할 때 중고 의류를 구매하는 등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2단계

- 06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07 환경 심리학 학술지에 소개된 실험 결과는 우리가 전자 기기에 의존할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즉,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의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8 **시술형** (다)의 중심 내용은 첫 번째 문장이다. 이 문장을 ‘선택’해서 요약하되, 반복되는 내용이나 예시 등을 ‘삭제’하면 (다)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3단계

- 09 (가)~(나)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고, (다)~(라)는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담은 주장하는 글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목표	글의 구조를 고려한 요약 방법 이해하기
채점 기준	✓ (가)~(나)와 (다)~(라)의 갈래를 제시하고, 제시된 형식에 맞게 요약 방법을 바르게 쓴 경우 [20점]
	✓ (가)~(나)와 (다)~(라) 중, 하나의 갈래를 제시하고 제시된 형식에 맞게 요약 방법을 쓴 경우 [10점]
	✓ (가)~(나)와 (다)~(라)의 갈래만 바르게 제시한 경우 [5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10 (라)에서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유행에 따라 옷을 구매하지

말고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고, 옷이 필요할 때 새 옷을 사지 않고 중고 의류를 구매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 목표	읽기 목적을 고려한 읽기 방법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라)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포함하여 바르게 요약하여 쓴 경우 [20점]
	✓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라)를 선택하였으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포함하여 쓰지 못한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간단 + 복습문제

25쪽

꼭지 시험	01 정보	02 신뢰성	03 수집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어휘 시험	01 비중	02 면역력	03 친근한	04 추정되는	
05 촉진하기	06 함유하고	07 ㉡	08 ㉠	09 @	

- 10 도표를 활용하여 전통 음식 인지도 설문 조사를 보여 주고 있다.

- 01 ‘비중’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의 의미이고, ‘자중’은 ‘말이나 행동, 몸가짐 따위를 신중하게 함.’의 의미이다. 그는 외모보다 사람됨에 중요도를 높게 두고 있으므로 ‘비중’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 02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의 의미이고, ‘자제력’은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힘’의 의미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여 일어나는 감기이므로 ‘면역력’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 03 ‘친근한’은 ‘사귀어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까운.’의 의미이고, ‘서먹한’은 ‘낮이 설거나 친하지 아니하여 어색한.’의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친근한’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26~27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②	06 ⑤
07 ③	08 이에 대해 너비아니를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 01 서연은 한식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을 살펴보고, 글의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종류를 정하였다. 그러나 글에 쓸 자료를 수집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 02 학교 소식지에 실을 글이므로 예상 독자는 학생들이다.

- 03 '화려한 궁중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체험 안내'는 너비아니 자체에 대한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적절하지 않은 자료이다.
- 04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한 '개요'를 작성하고 활용할 자료를 배치해 본다.
- 05 ○○ 중학교 소식지를 읽을 중학생이 예상 독자이므로,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제목으로 수정한 것이다.
- 06 (가)에서 '전통 음식 인지도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너비아니를 소개하려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이 글의 의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설문 결과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7 제시된 문장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나) 앞에 추가함으로써 앞뒤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 08 **서술형** '이에 대해 ~ 목소리도 있다.'는 너비아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28쪽

1단계 01 ㄱ-ㄱ-ㄹ-ㄴ-ㄱ

2단계 02 '너비아니의 가치'라는 주제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03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때 요리 순서를 소개한 (나) 자료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04 글을 쓰면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3단계 05 너비아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1단계

- 01 ㄱ은 고쳐쓰기, ㄴ은 표현하기, ㄷ은 계획하기, ㄹ은 내용 조직하기, ㅁ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계획하기(ㄷ)-내용 생성하기(ㅁ)-내용 조직하기(ㄹ)-표현하기(ㄴ)-고쳐쓰기(ㄱ)'의 과정에 따라 쓴다.

2단계

- 02 (마)는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을 안내하는 자료로, 너비아니 자체에 대한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제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글을 쓸 때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03 서언이 추가로 찾은 자료는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이므로, 너비아니의 재료와 요리 순서를 소개한 자료인 (나)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04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를 기록해 두고,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글에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에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3단계

- 05 너비아니라는 이름의 유래와 너비아니에 관한 기록 등 너비아니의 역사를 설명하기 전에 너비아니가 어떤 음식인지 개념을 먼저 소개하면 독자가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목표	글의 내용, 구성, 표현 등 점검하기
채점 기준	✓ ㉠에 너비아니의 개념을 추가한 까닭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30점]
	✓ ㉠에 너비아니의 개념을 추가한 까닭을 썼으나 <조건>에 맞게 쓰지 못한 경우 [15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29~32쪽

- 01 ② 02 ④ 03 ② 04 ⑤ 05 빠르게 쌓여 가는 옷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06 ④ 07 ① 08 ⑤ 09 ③ 10 ⑤ 11 ④ 12 ② 13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표기한다.

- 01 이 글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을 뿐, 시력이 약화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02 (가), (나)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설명하는 '처음' 부분이고, (다), (라)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기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중간' 부분이다. 그리고 (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가 나타나는 '끝' 부분이다.
- 03 (나)의 중심 내용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 04 (다)에 버려진 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버려진 옷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05 **고난도 서술형** (라)는 이 글의 결론 부분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드러나 있다. 글쓴이는 나부터 먼저 행동에 나서서,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 목표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
채점 기준	✓ 글쓴이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쓴 경우 [상]
	✓ 글쓴이의 주장을 썼으나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중]
	✓ 글쓴이의 주장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 [하]

- 06 (나)의 중심 내용은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상 기후 현상,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나)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지만, 중심 내용은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② (나)에서는 합성 섬유와 면섬유의 제조 방식 차이를 언급하고 있지만, 중심 내용은 '합성 섬유의 환경 오염'에 관한 것이다.

③ (나)의 내용 일부를 반영하고 있지만, 핵심은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다.

⑤ 패스트 패션 산업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나)의 주된 내용은 합성 섬유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 07 (다)는 버려진 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중심 내용은 버려진 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이므로,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 08 (가)에서는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 독자, 글의 소재와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누리집에 올리겠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⑤는 (가)의 글 쓰기 계획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09 (가)에서 너비아니의 유래,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 너비아니의 가치 등을 소개하겠다고 하였다. (나)의 중간 2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 너비아니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요리 순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는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0 중간 4의 중심 내용은 '너비아니의 변신'이므로 ㉡에는 너비아니를 전통적인 방식을 구현한 사례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너비아니로 색다른 음식을 만든 사례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11 (나)에서 너비아니의 유래와 역사를 알 수 있다. (나)에 따르면 너비아니를 고구려 사람의 고기구이라는 뜻의 '맥적'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너비아니를 조선 사람의 고기구이인 '맥적'에서 유래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2 글을 쓸 때에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이 글의 예상 독자는 중학교 학생들이므로 수준 높은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는지는 점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13 **서울형** 이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에서 활용된 정보와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너비아니의 유래와 관련된 『시의전서』와 『이조궁정요리통고』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었으므로, 해당 서적이나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글을 쓰면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글의 마지막에 분명하게 밝히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3 세상을 담는 언어, 우리를 잇는 매체



품사로 빛낸 세상

간단 + 복습 문제

34쪽

쪽지 시험	01 의미	02 5개	03 활용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조사	16 명사	17 부사
어휘 시험	01 온갖	02 모름지기	03 청유	04 ㉡	
05 ㉣	06 ㉠				

- 02 기능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 08 독립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얹매이지 않고 쓰이는 품사로, 감탄사가 이에 속한다. 관형사는 수식언에 해당한다.

- 10 수사는 '하나, 둘'과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와 '첫째, 둘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 나눌 수 있다.

- 01 '온갖'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라는 의미이고, '온통'은 '전부 다.'라는 의미이다. 제시된 문장은 여러 종류의 꽃들을 전시한다는 의미이므로, '온갖'이 들어가야 의미상 적절하다.

- 02 '비로소'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의미하고, '모름지기'는 '사리를 따져 보건대 마땅히. 또는 반드시.'를 의미하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모름지기'가 들어가야 의미상 적절하다.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5~36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걷다, 예쁘다, 피다, 지켜보다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01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 품사를 분류할 경우,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이다. ㉣은 모두 부사이므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은 모두 동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③ ㉡은 모두 감탄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④ ㉢은 모두 수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⑤ ㉤은 모두 조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02 ④ '어떤'은 '주어진 여러 사물 중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이라는 뜻을 지닌 관형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③ '사랑스러운(사랑스럽다)'과 '힘찬(힘차다)'은 모두 형용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②, ⑤ '잡으셨다(잡다)'와 '낱아서(낱다)'는 모두 동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03 ㉠ '슬픈'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인 형용사로, 다른 품사와 달리 쓰임에 따라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04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이다. ① '여기', ② '우리', ③ '나', ⑤ '거기', '언제'는 대명사이고, ④ '이번'은 명사이다.

05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이며, 관형사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관형사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와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①, ②, ④, ⑤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수사이며, ③ '다섯'은 뒤에 오는 명사 '개'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06 ㉠은 주어, ㉡은 목적어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 품사는 '체언'이다.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주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홀로 쓰인다.

07 '가늘게(가늘다)'와 '맛있다'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인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즐겁게(즐겁다)'는 형용사, '춥다(추다)'는 동사이다.
② '오르니(오르다)'는 동사, '상쾌했다(상쾌하다)'는 형용사이다.
③ '낮아서(낮다)'는 형용사, '얼었다(얼다)'는 동사이다.
⑤ '얕아서(얕다)'는 형용사, '읽었다(읽다)'는 동사이다.

08 **서술형** 용언은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동사 '걸으며(걷다)', '핀(피다)', '지켜보자(지켜보다)'와 형용사 '예쁘게(예쁘다)'가 용언으로 쓰였다.

09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용언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활용을 한다. 따라서 활용 여부를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① '도', ⑤ '까지'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고 그에 더해 너를 좋아한다.'라는 뜻이다. ④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도', '까지'와 비슷한 뜻을 지닌다. ② '는'은 '다른 사람들과 대조하여 너를 좋아한다.'라는 뜻이고, ③ '만'은 '여러 사람 중 오로지 너를 좋아한다.'라는 뜻이다.

11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는 관형사와 부사이다. ④ '천천히', '다시'는 부사, '여러'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당신'은 대명사, '잇다'는 동사, '아주'는 부사이다.
② '매우', '활짝'은 부사, '기쁨'은 명사이다.
③ '첫'은 관형사, '마음'은 명사, '사랑스레'는 부사이다.
⑤ '희다'는 형용사, '힘껏', '느릿느릿'은 부사이다.

12 ② '벌써', ③ '깜짝', ④ '가장', ⑤ '달랑'은 모두 부사이다. ① '무슨'은 명사 '맛'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나머지 품사와 다르다.

13 '아차'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인 감탄사로, 독립언에 해당한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문장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①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으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한다.

②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품사는 부사이다.

③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⑤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으며,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인다.

14 <보기>의 밑줄 친 ㉠은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고, '를'은 앞에 오는 체언이 '이용해'의 대상이 되게 하므로, 모두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아'는 감탄사, '다행히'는 부사이다.
② '정말'은 부사, '안타까워(안타깝다)'는 형용사이다.
③ '행복한(행복하다)'은 형용사, '이런'은 관형사이다.
⑤ '내어(내다)'는 동사, '큰(크다)'은 형용사이다.

15 제시된 문장에서 단어의 품사는 '모든'(관형사), '학생'(명사), '이'(조사), '손'(명사), '을'(조사), '들자'(동사), '선생님'(명사), '께서'(조사), '놀라셨다'(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37쪽

1단계 **01** ㉠: 품사, ㉡: 형태 **02** 관형사: 1개, 명사: 2개, 조사: 3개, 대명사: 1개, 동사: 2개 **03** ㉠: 이름, ㉡: 흔들다, 당기다, 멈추다

2단계 **04** ㉠ '너무'와 ㉡ '갑자기'는 모두 부사로,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너무'는 뒤에 오는 형용사인 '어렵다'를 꾸며 주는 반면, ㉡ '갑자기'는 '날씨가 추워졌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05** 수식어는 '헌'(관형사), '열심히'(부사)이다. '헌'은 뒤에 오는 체언인 '신발'을 꾸며 주고 있으며, '열심히'는 용언인 '달렸다(달리다)'를 꾸며 주고 있다.

3단계 **06** ㉠의 '그'는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체언 중에서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의 '그'는 뒤에 나오는 명사(체언) '아저씨'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문장에서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07 동사는 어간에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있으나, 형용사는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제시된 단어 중 '미안하다'는 '미안해라'(명령형), '미안하자'(청유형)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형용사이고, '마시다'는 '마시라'(명령형), '마시자'(청유형)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1단계

- 01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묶어 놓은 무리를 말한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 02 제시된 문장에서 ‘어떤’은 관형사, ‘사람’, ‘행복’은 명사, ‘이’, ‘에게’, ‘에’는 조사, ‘나’는 대명사, ‘대해’, ‘물었다’는 동사이다.
- 03 ‘호수’, ‘손’, ‘믿음’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보기>의 단어 중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는 ‘당기다’, ‘흔들다’, ‘멈추다’이다. ‘맑다’, ‘빨갳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2단계

- 04 ㉠과 ㉡은 모두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지만, 각각 꾸며 주는 대상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 ‘너무’는 형용사 ‘어렵다’를 꾸며 주고 있으나, ㉡ ‘갑자기’는 ‘날씨가 추워졌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 05 수식언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와 부사를 이르는 말이다. <보기>에서 수식언은 ‘헌’(관형사), ‘열심히’(부사)이다. ‘헌’은 뒤에 오는 체언인 ‘신발’을 꾸며 주고 있으며, ‘열심히’는 용언인 ‘달렸다(달리다)’를 꾸며 주고 있다.

3단계

- 06 ㉠의 ‘그’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고, ㉡의 ‘그’는 뒤에 오는 명사(체언) ‘아저씨’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하는 품사로, 주로 조사와 결합한다. 관형사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주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위치한다.

평가 목표	대명사와 관형사의 차이점 파악하기
채점 기준	✓ ㉠과 ㉡의 품사를 바르게 쓰고, 각 품사의 기능에 알맞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쓴 경우 [20점] ✓ ㉠과 ㉡의 품사만 바르게 쓴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07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어간에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단어 중 ‘미안하다’는 ‘미안해라’, ‘미안하자’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에 속하고, ‘마시다’는 ‘마셔라’, ‘마시자’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평가 목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 이해하기
채점 기준	✓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을 한 문장으로 쓰고, 제시된 단어의 활용형을 포함해서 품사를 맞게 쓴 경우 [30점] ✓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을 한 문장으로 썼으나, 제시된 단어의 활용형을 바르게 쓰지 못한 경우 [20점] ✓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만 한 문장으로 쓴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상호 작용적 매체와 소통

간단 + 복습 문제

39쪽

쪽지 시험	01 쌍방향	02 누리집	03 없다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어휘 시험	01 관점	02 양상	03 맥락	04 ㉦
05 ㉧	06 ㉨			

- 02 상호 작용적 매체 중 누리집은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둔 공간이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 대화방은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 의견, 관점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다.

- 07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 02 ‘양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의 의미이고, ‘정체’는 ‘본심(本心)의 모양.’의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양상’이 들어가야 의미상 적절하다.

- 03 ‘맥락’은 ‘사물 등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의 의미이고, ‘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의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맥락’이 들어가야 의미상 적절하다.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40~4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 01 (가)는 온라인 대화방,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다)는 누리집으로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 02 정민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기 위해 (가)는 온라인 대화방,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있고, (가)와 (나) 모두 프로필 사진을 찾고 있는 강아지로 바꾸었다.

오답 풀이

㉠, ㉡, (가)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소통 공간이고,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이를 활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 03 (가)는 온라인 대화방의 유형 중 일대일 대화방으로 정민과 수아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04 (다) 누리집은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매체로,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다. 따라서 게시자의 개인적인 생각, 의견, 관점 등을 자유롭게 올릴 때에는 온라인 대화방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5 (가)는 누리집으로, '이 게시물의 댓글은 회원 가입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보아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만 댓글을 허용하고 있다.
- 06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소통 맥락, 소통 목적, 소통 공간, 소통 상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가)와 (나)의 소통 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 07 <보기>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특정 단어 또는 문구 앞에 '#' 기호를 붙여 게시 글에 꼬리표를 다는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게시 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08 [A]는 온라인 대화방의 링크 기능으로 특정 자료, 문서 또는 외부 누리집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대화 중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탐색하거나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09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소통 맥락과 소통 목적, 소통 공간의 특성, 소통의 참여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수용과 생산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이므로,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구분되어 있는지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고, 최신형 기기를 활용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42쪽

1단계 01 쌍방향, 실시간 02 누리집

2단계 03 <보기>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림말을 전송하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04 빠른 정보 확산과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봉사 활동을 홍보하기에 효과적이다. 사진과 글을 게시하여 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사용자 간 관계망 형성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05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계정 없이는 게시물 확인이 어렵고, 온라인 대화방은 전교생이 참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실시간 대화로 중요한 정보가 금방 밀려나 공지 확인이 어렵다. 반면,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며, 게시 글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므로 체육 대회 일정에 대한 공지에 적합하다.

3단계 06 제시된 자료와 <보기>의 상황에 나타난 공통된 문제점은 공적인 매체의 소통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제시된 자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의할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누리집의 다른 게시판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기>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공적인 정보와 사적·상업적인 정보를 구분하는 별도의 게시판을 마련할 수 있다.

1단계

- 01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 02 <보기>에서 설명하는 상호 작용적 매체는 누리집이다. 누리집은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 등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게시판의 댓글을 통해 이용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2단계

- 03 <보기>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링크 기능과 그림말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 04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특정한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다.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댓글로 상호 작용할 수 있어 정보 확산과 접근성이 뛰어나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 05 제시된 상황은 다수의 학생에게 공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공지 사항 게시판을 활용하면 전교생이 별도의 계정 없이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3단계

- 06 제시된 자료와 <보기>의 상황은 공통적으로 공적인 매체의 소통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누리집이나 아파트 단지 게시판과 같은 공적 매체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 공간이므로, 소통의 맥락을 고려하여 중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평가 목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채점 기준	✓ 제시된 자료와 <보기>의 상황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을 찾고, 제시된 형식에 맞게 해결 방안을 바르게 쓴 경우 [30점]
	✓ 제시된 자료와 <보기>의 상황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하나만 제시한 경우 [20점]
	✓ 제시된 자료와 <보기>의 상황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만 바르게 제시한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안원 평가

43~46쪽

- 01 ③ 02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가?
 03 ⑤ 04 ③ 05 ④ 06 ③ 07 ② 08 ⑤
 09 ④ 10 ㉠은 관형사, ㉡은 부사이다. ㉠과 ㉡은 수식언어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은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이고, ㉡은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품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 ③ 12 ③
 13 ⑤ 14 ③ 15 ② 16 누리집의 주소를 복사해서 전달하거나 게시 글의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이 게시 글에 접근할 수 있다. 17 ③ 18 ④ 19 ⑤ 20 ④

01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수식언어이다. '헌', '모든'은 관형사, '느릿느릿'은 부사로, 수식언어에 해당한다. '풍경'은 명사, '그녀'는 대명사, '서넛'은 수사로 체언, '걷다'는 동사, '푸르다'는 형용사로 용언, '앗'은 감탄사로 독립언, '에게'는 조사로 관계언에 해당한다.

02 **시술형** '옛'은 관형사, '빨리'와 '무척'은 부사이다. 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수식언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03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이르는 말이다. ㉔에서 '나'는 대명사이고 '교실', '밖', '운동장'은 명사로, 체언은 모두 4개이다.

오답 풀이 ① '태양'은 명사로, 체언은 모두 1개이다.

② '주방장', '면'은 명사로, 체언은 모두 2개이다.

③ '고양이', '책상', '아래'는 모두 명사로, 체언은 3개이다.

④ '그', '나'는 대명사, '사과'는 명사, '하나'는 수사로, 체언은 모두 4개이다.

04 ① '사흘', ② '우정', ④ '전', ⑤ '마음씨'는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인 명사이며, ③ '너희'는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들일 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대명사이다.

05 <보기>의 밑줄 친 단어는 '조사'이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품사이다. 그러나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조사가 아니라 관형사이다.

06 '꼭'은 동사 '들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에 해당한다.

07 ㉔ '모아'는 동사로 기본형은 '모으다'이다. ㉔ '노란'은 형용사로 기본형은 '노랗다', ㉔ '오면'은 동사로 기본형은 '오다', ㉔ '걸린'은 동사로 기본형은 '걸리다', ㉔ '풀게'는 동사로 기본형은 '풀다'이다.

08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는 부사이다. <보기>의 문장에 쓰인 '너무'는 부사 '많이'를, '유난히'는 형용사 '맑았다'를 꾸며 주고 있다. 그러나 체언을 꾸며 주어 체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09 수식언어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수식언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푸른'은 형용사 '푸르다'의 활용형이며, '흰'은 형용사 '희다'의 활용형이므로 ㉔에는 수식언어 쓰이지 않았다.

10 **고난도 시술형** ㉔은 관형사, ㉔은 부사이다. ㉔과 ㉔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어이다. <보기>에서 ㉔은 명사(체언) '관계'를, ㉔은 동사(용언) '묻지'를 꾸며 주고 있으며, 이 둘은 꾸며 주는 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목표	관형사와 부사의 특성 이해하기
채점 기준	✓ 두 단어의 품사를 정확히 밝히고, 관형사와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쓴 경우 [상]
	✓ 두 단어의 품사는 밝혔지만, 관형사와 부사의 공통점만 쓴 경우 [중]
	✓ 두 단어의 품사만 밝힌 경우 [하]

11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러나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므로 관형사나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

12 '그래'는 감탄사, '그것'은 대명사, '참'은 부사, '좋은'은 형용사, '생각'은 명사, '이야'는 조사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는 동사가 쓰이지 않았다.

13 '우리'는 사람,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14 정민은 온라인 대화방(㉔)에서 강아지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㉔)을 변경한 후, 수아가 보내 준 링크(㉔)로 강아지를 봤다는 장소(위치)를 전달 받아 그곳으로 향하였다.

15 (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특정한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다. 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 간의 비밀스러운 내용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없다.

16 **고난도 시술형** 누리집의 주소를 복사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으며, 제목 오른쪽에 있는 '공유' 버튼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이 연결된 링크를 통해 게시 글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누리집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으나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평가 목표	누리집의 특성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활용해 두 가지 방법을 정확히 쓴 경우 [상]
	✓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한 가지 방법만 쓴 경우 [중]
	✓ (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쓴 경우 [하]

17 (가)에서는 글과 함께 문서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음악, 사진 등은 활용하고 있지 않다.

18 (가)는 누리집으로 공적인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한 반면, (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에 비해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9 (가)와 (나) 모두 수용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 하준은 '@' 기호를 활용하여 소연의 계정을 언급하였지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특정 수용자에게만 정보를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20 (가)는 공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고, (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친구와의 다툼을 올렸다. 이는 소통 공간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매체의 특성과 의사소통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4 갈등을 푸는 지혜



문학과 갈등

간단 + 복습문제

48쪽

꼭지 시험	01 갈등	02 역순행적	03 결말	04 ㉠
05 ㉡	06 ㉢	07 ㉣, ㉤	08 ○	09 ×
10 ○	11 양심	12 협박	13 고백	
어휘 시험	01 가뜰하다	02 연하다	03 무춤하다	
04 가책	05 착수했다	06 도리어	07 ㉥	08 ㉦
09 ㉧				

- 02 문학에서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순서가 역전되는 것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순행적 구성이라 한다.
- 03 소설에서 사건이 해결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를 결말이라고 한다.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 09 「하늘은 맑건만」은 문기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수만과 함께 쓰면서 생기는 일을 다루고 있으며, 문기의 내적 갈등, 문기와 수만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설 전반에서 문기가 살았던 1930년대의 시대적 배경이 잘 드러나 있다.
- 04 '가책'은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 책망함.'의 의미이고, '유책'은 '하야 할 임무가 있음.'의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가책'이 들어가야 의미상 적절하다.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49~50쪽

01 ③	02 ③	03 (가) 외적 갈등, (나) 내적 갈등	04 ②
05 ③	06 ②	07 ②	08 ③
09 ②			

- 01 이 글은 문기의 경험을 통해 양심의 중요성과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태도를 이야기한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개인의 도덕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
- 02 선생님이 문기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일부러 문기를 쳐다본 것이 아니다. 문기가 '정직'에 대해 설명하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선생님이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말하는 것처럼 느낀 것이다.
- 03 **서술형** (가)에서는 문기와 수만의 외적 갈등이, (나)에서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주로 드러난다.

- 04 (가)에서 문기는 수만의 협박에 굴복해 돈을 가져다준다. 이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수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을 드러낸다.

오답풀이 ①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숙모의 돈을 훔치는 것으로 보아 뒷일을 미리 대비하는 치밀한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문기는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해 말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모두 자신에게만 들리기 위한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있다.
- ④ 문기는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챈 것 같아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 ⑤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허물을 범하는 것으로 보아 문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고집스러운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 05 문기가 범한 두 번째 허물은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숙모의 돈에 손을 댔 것이다.
- 06 (가)에서 문기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②의 상황이 가장 유사하다.
- 07 (나)에서 문기가 고백한 잘못은 고깃간 주인이 잘못 거슬러 준 돈을 써 버린 것, 불장 안에 있는 숙모의 돈을 훔쳐 낸 것 등이다.

오답풀이 ①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므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문기는 수만과 함께 공과 쌓안경 등을 샀을 때에만 어울렸을 뿐, 삼촌의 훈계를 듣고 난 후에는 수만과 어울렸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일 뿐, 문기가 저지른 잘못은 아니다.
- 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문기의 잘못이 아니며, (나)에서도 문기는 교통사고가 난 것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말했다.

- 08 ㉠에서 삼촌이 웃지도 않고 문기를 내려다본 것은 문기가 격정되었기 때문이고, ㉡에서 문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그동안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09 ㉢는 문기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숙모, 삼촌, 점순이 두려웠다는 것으로 보아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치고 점순에게 누명을 씌운 것과 자신을 믿어 주는 삼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등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51~52쪽

1단계	01 십 원	02 돈을 세어 보고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씻었다.	03 잘못 거슬러 받은 돈	04 공, 만년필, 쌓안경, 만화책, 군것질거리	05 손이 맞다
-----	--------	--------------------------------------	----------------	----------------------------	----------

2단계 06 숙모가 일 원을 준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07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한 문기의 내적 갈등이 두 드러진다. **08** 문기는 ㉔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㉔로 이동하면서 차차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3단계 09 (가)를 (보기)와 같이 바꾸면 인물의 성격이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 성격이 제시된다. 따라서 독자는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0** 사람이 아닌 '상점 유리창 안의 것'이 '손짓해 부르는 듯했다'라고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돈을 쓰기로 마음먹고 상점 유리창 안에 진열된 물건들을 보면서 설레는 문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1단계

- 01** “고길 사러 갔는데 말야. 난 일 원 짜리로 알구 냈는데 십 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야.”라는 말에서 문기가 고기를 사고 십 원을 거슬러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02** 문기의 숙모는 거스름돈을 받아 두 번 자세히 세어 보고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를 씻었다.
- 03** 이 글의 갈등은 문기가 고깃간에서 잘못 거슬러 받은 돈에서 시작된다. 문기는 수만의 꼬드김에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함께 쓰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 04** 문기와 수만이는 돈으로 가지고 싶고 해 보고 싶은 것들을 바꾸어 보고 싶어 했으며, 결국 공, 만년필, 쌍안경, 만화책, 군 것질거리를 샀고 활동사진도 구경했다.
- 05** ‘두 소년은 마침내 손이 맞고 말았다.’에서 ‘손이 맞다’는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다는 의미의 관용표현이다.

2단계

- 06** 수만이 문기에게 ㉔과 같이 말한 의도는 숙모가 일 원을 준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수만은 잔돈을 먼저 숙모에게 주어 숙모가 거스름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숙모가 일 원을 준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
- 07** (나)에서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두드러진다. 수만은 문기에게 돈을 사용해서 갖고 싶은 것을 사자고 제안하지만 문기는 수만의 제안에 끌리면서도 도덕적인 양심과 두려움 때문에 망설인다. 하지만 결국 문기는 수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며 죄책감을 느낀다.
- 08** ㉔에서 ㉔로 이동하면서 문기의 심리는 점차 불안에서 흥분과 기쁨으로 변한다. 처음 으스스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지만, 밝은 큰 길로 나오면서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환한 상점들의 유리창에 비친 물건들이 마치 자기 것인 듯 손짓하는 모습에 기쁨과 흥분이 밀려왔다.

3단계

- 09**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로 나눌 수 있다. 간접 제시는 (가)와 같이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고, 직접 제시는 (보기)와 같이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가)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문기와 수만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는 수만에 대해 ‘셈이 빠르고 꺾이 많은’이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 목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파악하기
채점 기준	✓ (가)와 (보기)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인물의 성격이 서술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효과를 바르게 쓴 경우 [20점]
	✓ (가)와 (보기)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만 쓴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10** 상점 유리창 안의 물건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손짓해 부르는 듯하다고 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글에서는 ㉔을 통해 환한 상점 유리창에 진열된 물건들을 보며 설레는 문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평가 목표	표현 방법 파악하기
채점 기준	✓ ㉔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의미를 바르게 쓴 경우 [20점]
	✓ ㉔에 사용된 표현 방법만 바르게 쓴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토의하기

간단 + 복습 문제

54쪽

쪽지 시험 01 협력 02 근거 03 해결 방안 04 주제, 청중 05 수용 06 패널 토의 07 다수 08 토의 준비하기 09 사회자 10 질문 11 ○ 12 ○ 13 ×
어휘 시험 01 유형 02 관점 03 ㉔ 04 ㉔ 05 ㉔
06 ㉔ 07 ㉔ 08 ㉔

- 06** 원탁 토의는 토의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이다.
- 13** 학생들은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면서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기로 하며 결정하고 토의를 마무리하였다.
- 04**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의미하고,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미한다. 이 문장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관련이 있으므로,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

- 01 ① 02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03 ④ 04 ①
05 ② 06 ③ 07 은우의 제안은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등교
시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불공평하다. 08 ③ 09 ⑤

- 01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①과 같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주제는 토의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 02 **서술형** 이 글에서 민준과 친구들은 지금까지 번호 순서대로 자리가 고정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교실에서 자리를 바꾸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 03 (가)에서 친구들은 학급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토의를 진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04 (나)의 은우의 말에서 패널 토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 토의는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고, 패널이 아닌 친구들은 청중으로 참여하여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며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ㄹ. 패널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적절한 근거를 토대로 하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ㄴ. 패널 토의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토의가 이루어지며, 청중과의 질의응답에 따라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05 사회자 민준은 토의의 진행 순서와 토의자가 의견을 발표할 순서를 설명하며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 06 (나)에서 은우는 학생들마다 선호하거나 원하는 자리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선착순으로 선택권을 주자고 제안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서연은 친한 친구와 함께 앉으면 짝이나 모둠 활동의 과정이 수월하고, 결과물도 훨씬 좋았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고 하였다.
② 은우는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온 순서대로 자신이 수업에 더 집중이 잘 되는 자리를 선택하여 앉자고 하였다.
④, ⑤ 지아는 어떤 기준이든 자리를 정하고 나면 그 후에는 다양한 까닭으로 불편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추천으로 자리를 정하자고 하였다.
- 07 **서술형** 서연은 은우의 의견에 대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사람은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자리에만 앉아야 한다며 불만을 제시하고 있다.
- 08 (라)에서 토의자들은 토의 주제에 관한 각자의 제안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09 서연은 은우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서연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1단계 01 최선 02 토의자, 청중

2단계 03 사회자는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토의 결과를 정리한다. 04 토의자는 토의 전에 토의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정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단계 05 서연은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비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지아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토의자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토의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6 토의와 토론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토의는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토론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1단계

- 01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다.
- 02 토의자들의 의견을 들은 청중은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토의자에게 질문하는 역할을 한다.

2단계

- 03 <보기>에서 사회자는 토의 주제와 참여자들의 의견 교환으로 도출된 토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04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는 토의자가 주제와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3단계

- 05 토의 참여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예의 바르게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

평가 목표	토의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 이해하기
채점 기준	✓ 두 사람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한 경우 [25점]
	✓ 두 사람의 말하기 방식만 비교하거나 바람직한 태도만을 제시한 경우 [2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06 토론이 경쟁적이고 설득을 목적으로 한 말하기라면, 토의는 협력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말하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평가 목표	토의와 토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채점 기준	✓ 토의와 토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정확히 밝힌 경우 [30점]
	✓ 토의와 토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정확히 밝힌 경우 [2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58~61쪽

- 01 ① 02 ② 03 ③ 04 ⑤ 05 ① 06 ⑤
07 ⑤ 08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과 양심에 따르는 정직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09 ① 10 ④ 11 ⑤ 12 ③ 13 ② 14 ⑤
15 추첨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하였다. 16 ③ 17 토의자
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짚어 주어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
는 데 도움이 된다.

- 01 문기가 수만을 꺾어 돈을 함께 쓰자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수만이 문기를 꺾어 돈을 함께 쓰자고 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문기는 숙모에게 받은 일 원짜리로 고기를 사
러 갔는데, 거스름돈을 많이 받아 어리둥절함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문기는 수만에게 오늘 작은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앞으로
그런 건 안 할 작정이라고 하였다.
④ (나)에서 수만은 문기에게 나하고 약속한 것을 실행하리면서, 싫다
면 돈만 내놓으라며 문기를 협박하고 있다. (다)에서도 수만이 문기를
괴롭히는 행동이 나타난다.
⑤ (나)에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수만의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상을 짓는 행동에서 문기의 소심하고 순진한 성격을 알 수 있다.
02 수만은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등 집요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문기에
게서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03 (가)에서 문기는 고깃집에서 일 원을 뺏으나, 생각보다 거스
름돈을 많이 받아 당황하고 의아해하고 있다.
04 (다)에서 문기와 수만이 갈등하는 까닭은 수만이 문기의 말
을 믿지 않고 문기가 혼자 돈을 쓰려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05 '일 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돈의 단위로, 당시 시대상
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06 (가)에는 숙모의 돈을 훔치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나)에는
범인이 자신임을 밝히지 못하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다)에
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07 수만은 나머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는 문기의 말
을 믿지 않고 나머지 돈을 가져 오라고 한 것이지, 숙모의 돈
을 훔쳐서 나오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08 **고난도 서술형** 수신 시간에 문기가 느끼는 감정으로 보아, 글
쓴이는 '정직한 삶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평가 목표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채점 기준	✓〈조건〉에 맞게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확히 쓴 경우 [상]
	✓〈다〉에 사용된 단어를 활용하였지만 글쓴이가 전달하고 자 하는 주제를 부족하게 쓴 경우 [중]
	✓〈다〉에 사용된 단어와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모 두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 [하]

- 09 ①에서 문기는 속으로 값으면 고만이라고 되뇌이고 있는데,
이는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데서 오는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
이라도 털기 위한 행동이다.
10 토의자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사회
자는 토의자들이 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토의를 진행해야 한
다. 토의를 평가할 때에는 토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11 지아의 의견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모든 사
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
자는 것이다. 추첨이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라고 하지는 않았다.
12 (가)에서 민준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토의를 하게 된 배경
을 제시하면서 토의 주제를 알리고, 토의자 및 진행 순서와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밝히고 있지 않다.
13 (나)~(라)에서 토의자인 서연, 은우, 지아는 근거를 들어 자
리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토의의 절차 중 '토의자의 제안'에 해당한다.
14 지아는 은우의 의견에 먼저 온 친구가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
아 둘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은우는 이러한 문
제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민준은 앞서 이야기한 토의자들의 의견에 질
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청중은 손을 들어 말씀해 달라고 하였다.
② (나)에서 은서는 서연의 의견에 같은 반에 앉고 싶은 친구가 없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다.
③ (나)에서 서연은 은서의 질문에 이 방법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의견을 반복하고 있다.
④ (가)에서 지아는 먼저 온 친구가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은우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차분한 목소
리로 전달하고 있다.
15 **서술형** (다)에서 민준의 발언으로 보아, 오늘 토의를 통해
추첨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16 (가)에서 은우는 학교에 오는 순서가 집과의 거리와 관련이
없으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찍 일어나 원하는 자리에 앉
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①에
해당하는 의견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불
리하다는 것이다.
17 **고난도 서술형** 패널 토의에서 청중의 질문이나 의견 제시는
토의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짚어 줌으로써 문제
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평가 목표	패널 토의의 절차 이해하기
채점 기준	✓패널 토의에서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필요한 까닭을 (나) 의 상황과 관련지어 쓴 경우 [상]
	✓패널 토의에서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필요한 까닭을 썼으 나, 간단히 쓴 경우 [중]
	✓패널 토의에서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필요한 까닭을 쓰지 못한 경우 [하]

01 ② 02 ④ 03 길 04 ③ 05 ④ 06 이 뉴스 보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유명무실한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다. 기자는 이 보도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관련 법규를 실효성 있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07 ④ 08 ② 09 ② 10 ⑤ 11 ⑤ 12 ⑤ 13 ② 14 옷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문제점 15 ③ 16 ⑤ 17 ③

01 (가)는 직유, 은유, 의인과 같은 비유를 활용하여 3월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이른 봄의 정서를, (나)는 상징을 활용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02 ‘마음 어두운 밤’은 말하는 이가 처한 괴롭고 힘든 현실을 암시하므로 말하는 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말하는 이는 ‘마음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즉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길’을 비추어 주는 사람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3 **사슬형** (나)의 4연에서 말하는 이는 ‘마음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길’을 비추어 주는 사람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마음 어두운 밤’은 말하는 이의 힘든 상황을 의미하며, ‘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하는 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의미한다.

04 ‘하얀 이불’, ‘자장가’, ‘아이들’은 각각 ‘산과 들에 쌓인 눈’,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 ‘파란 싹들’이라는 원관념을 빗대어 표현한 보조 관념이다.

05 이 뉴스 보도를 통해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고난도 사슬형** 뉴스 보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유명무실한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다. 기자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목표	뉴스 보도에 나타난 기자의 의도 추론하기
채점 기준	✓ 뉴스 보도에 나타난 기자의 의도를 <조건>에 맞게 바르게 쓴 경우 [상]
	✓ 뉴스 보도에 나타난 기자의 의도를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 [중]
	✓ 뉴스 보도에 나타난 기자의 의도를 <조건>에 맞게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 [하]

07 화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8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할 때 마음의 근육이 더 강하고 단단해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화자의 연설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09 (가)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였지만,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까닭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⑤ 이 글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뇌의 사고 능력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근거로 들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가)에서 스마트폰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0 (나)의 실험은 뇌의 사고 능력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11 ㉠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된다는 것이 (다)의 중심 내용이다.

12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며, 보통 1~2주라는 짧은 주기로 새로운 옷을 생산해 매장에 선보이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다양한 품목의 옷을 소량 생산하여 상품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13 (나)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고난도 사슬형** 이 글은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빈칸에는 (나), (다), (라)에 제시된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요약한 본론의 중심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목표	글의 구조를 고려한 중심 내용 요약하기
채점 기준	✓ 글의 구조를 파악하여 본론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쓴 경우 [상]
	✓ 글의 구조를 고려하였지만 본론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쓰지 못한 경우 [중]
	✓ 글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론의 중심 내용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 [하]

15 내용 전개 순서가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은 ‘고쳐쓰기’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고,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 및 순서를 정하여 개요를 작성하며 점검할 수도 있다.

16 너비아니와 관련된 기록은 (나)에 나타나 있다. 너비아니 이름의 유래, 관련 내용이 실린 최초의 서적 등의 내용만 있을 뿐 너비아니가 정확히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너비아니의 주재료는 (다)에 나타나 있다.

②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은 (다)에 나타나 있다.

③ 너비아니에 들어 있는 영양소에 대한 내용은 (라)에 나타나 있다.

④ 너비아니로 만든 최근의 요리에 대한 내용은 (마)에 나타나 있다.

17 너비아니 조리 영상 자료는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으로, (다)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에서 너비아니의 조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조리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가 너비아니 조리 과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전에 강한

기말 고사 대비 모의고사 1회

68~72쪽

- 01 ④ 02 ① 03 ④ 04 걱정, 감동 05 ②
06 ② 07 ③ 08 ④ 09 ⑤ 10 ② 11 ⑤
12 ④ 13 ① 14 ① 15 ㉠에 나타난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현재 일어난 일의 발단을 알 수 있으며, 사건에 긴장감을
주고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하는 효과
가 있다. 16 ① 17 ④ 18 ② 19 ③ 20 ⑤
21 토의에서 제시할 의견과 근거를 마련할게. 22 ③ 23 ⑤
24 ②

01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지닌 단어들을 모아 분류해 놓은 것이다.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품사를 알면 문장 안에서 단어의 역할과 쓰임을 자세히 알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02 단어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보다'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조사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관계언이다.

오답풀이 ② '오래'의 품사는 부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③ '한'의 품사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④ '흐르는'은 기본형 '흐르다'가 활용한 형태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간 '흐르-'에 어미 '-는'을 붙인 것이다. '흐르는(흐르다)'의 품사는 동사로, 용언에 해당한다.

⑤ '책상'의 품사는 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03 <보기>의 '추억'은 명사, '셋'은 수사, '우리'는 대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한다.

04 **시술형**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추상 명사로, <보기>에서 추상 명사는 '걱정', '감동'이다.

05 용언 중 형용사는 어간에 현재형 어미 '-는다 / -다', 명령형 어미 '-어라 / -아라',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다. ② '부지런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과 결합할 수 없다.

06 ②는 형용사 '가늘다'가 활용한 형태이므로 조사로 볼 수 없다.

07 ㉠ '매우'는 부사로, 뒤의 부사 ㉡ '열심히'를 꾸며 준다.

오답풀이 ① '어떤'은 관형사로 뒤에 있는 명사 '날씨'를 꾸미고 있으므로,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위치를 옮길 수 없다.

② '새'는 관형사이다.

④ '모름지기'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⑤ 체언을 꾸며 주는 말은 ㉠ '어떤', ㉠ '새', ㉡ '모든'으로 총 3개이다.

08 ㉠에는 부사 '번쩍', '깜짝'이 있으며, ㉡에는 부사 '역시'가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체언은 '학생', '손', '선생님'이고, ㉡에서 체언은 '수박', '여름', '제철'로 각각 3개의 체언이 있다.

② ㉠에서 관계언은 '이', '을', '께서'이고, ㉡에서 관계언은 '은', '이', '이'로 각각 3개의 관계언이 있다.

③ ㉠에는 동사 '들다', '놀라다'가 있지만, ㉡에는 동사가 없다.

⑤ ㉠에는 관형사 '세'가 있지만, ㉡에는 관형사가 없다.

09 (가)~(다)는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10 (가)는 일대일로 소통하는 온라인 개인 대화방이고,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강아지를 잃어버린 정민이 활용하기에 적절한 매체이다.

11 (가)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학교 학생회의 공지 사항처럼 공적인 정보를 학교 전체 구성원과 같은 다수에게 공식적으로 공유할 때에는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12 (다)는 누리집으로, 공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즉, 공적인 성격의 소통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문제점이 있다.

13 이 글은 소설로, 서술자에 의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14 (가)~(라)의 주된 갈등은 문기의 내적 갈등이다. 문기는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수만과 함께 그 돈을 쓰면서 갈등한다.

15 **고난도 시술형** (나)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는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 있다.

평가 목표	소설의 구성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역순행적 구성을 정확히 제시하고, 특징 및 효과를 <조건>에 맞게 바르게 쓴 경우 [상]
	✓ 역순행적 구성을 제시하였으나 특징 및 효과를 <조건>에 맞게 쓰지 못한 경우 [중]
	✓ 역순행적 구성과 특징 및 효과를 쓰지 못한 경우 [하]

16 (다)에서 수만은 문기를 꼬드겨 문기가 더 받은 거스름돈을 함께 쓸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대담하고 교활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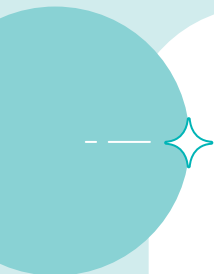
17 (라)에서 문기가 삼촌 앞에서보다 갑절 얼굴이 달아오른 까닭은 삼촌의 훈계를 들은 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믿어 주는 삼촌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에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18 문기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뜻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 ㉠에는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인물의 성격과 관계가 드러나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20 토의에서 청중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제와 토의 흐름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자는 토의를 이끄는 중립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없다.
- 21 **서술형** 패널들은 토의에 참여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토의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그 의견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 22 (마)에서 토의를 통해 추천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결정되었다. 자리를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자리를 추천하는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 23 토의에서 사회자는 전체적인 진행을 맡아 토의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토의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 24 ㉠에서 지아는 서연과 은우의 의견을 각각 경청하고, 두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토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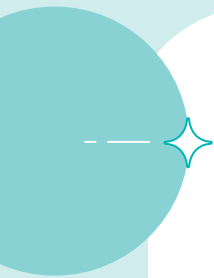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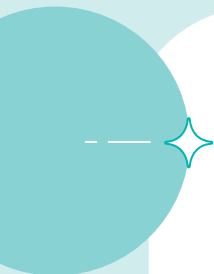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